

Vol.88 2025. 05

특집 : 이주민 선교
FMB, SRDC, WMTC 선교저널

FMB Missio Dei

Foreign Mission Board of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 + Missio Dei는 라틴어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 + Missio Dei는 FMB와 FMB 산하기관인 SRDC, WMTC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통합 선교 저널입니다
- + 침례교해외선교회(Foreign Mission Board of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FMB)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당대에 주님이 다시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미전도 종족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교회를 세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SRDC
Strategy Research Development Center

wmtc
World Missions Training Center

- 발행인 | 주민호 • 발행처 | 침례교해외선교회(FMB) • 발행일 2025년 5월 22일 • 홈페이지 www.fmb.or.kr
- 주 소 |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번길 10,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빌딩 12층
- 연락처 | Tel. 02-2619-2202-4 Fax. 02-2619-8797 E-mail. fmbkorea@fmb.or.kr

Contents



- 제목 : 국내 이주민 선교는 시대적 사명
- Photographer : 문사진

Missio Dei 표지를 장식할 생생한 선교 현장 사진을 보내주세요.(인물, 풍경, 사역 등)

* 파일명을 '이름-사진제목'으로 변환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MB Missio D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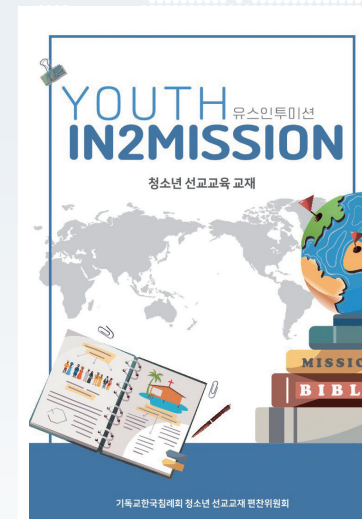
머리글	03
이주민 선교의 이론적 배경	04
이주민 선교의 실태와 전망	14
국내 이주민 선교이야기	24
목회자 제자 훈련 사례연구	32
신학교 사역 사례연구	40
중앙아시아 연합모임	46
미션서밋	50
인턴 리엔트리	54
은퇴 감사예배	56
35기 장단기선교사 소개 및 기도제목	60
35기 장단기선교사 훈련 소감문	67
사진으로 보는 35기 장단기선교사 훈련	68
인턴선교사 소개 및 기도제목	72
인턴선교사 훈련 소감문	76
선교사 이야기	78
기관별 사역 일정(FMB, SRDC, WMTc)	85
in2mission 안내	86

청소년 인투미션 교재 발간

목 적 | 한국교회 다음세대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선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

대 상 | 청소년(중·고등학생)

용 도 | 교회 수련회, 교회 혹은 학교 선교주간, 단기선교 훈련프로그램, 공과교재, 학교 선교 수업 등



특 징 |

- 1) 12과로 구성되어 필요한 과를 선택하여 학습 가능
- 2) 침례교해외선교회에서 제공하는 선교 최신 자료 사용
- 3) 각 과별로 3가지 이상의 학생 활동자료를 수록해 활동적인 교육이 가능



- 본 교재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청소년 선교교재 편찬위원회에서 제작했습니다.
- 가격은 2만원(교사용 바인더)이며, 문의 및 구매는 세계선교훈련원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42-828-3371, wmtc94@gmail.com

[FMB, SRDC, WMTc는 재정이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행복한 동행 - 후원의 종류

- 재정후원 : 각 기관들의 사역을 위한 일반 후원과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 헌금
- 중보기도 : 분기별로 소식지를 활용하여 기관들과 선교사들을 기도로 지원
- 재능기부 : 기타 행정 지원 및 MK 교육, 돌봄지원

📍 행복한 동행 - 재정후원방법

- 각 단체별 후원 계좌를 통해 직접 일시 후원, 정기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침례교해외선교회 : 256-890033-76504 (하나은행,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 선교전략연구개발원 : 990-007953-940 (하나은행, 기독교한(선교전략))
- 세계선교훈련원 : 461301-04-598321 (국민은행, 세계선교훈련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김종성 목사 (부산침례교회 담임 / FMB 이사장)

얼마 전 해외선교회 이사님들과 미국에 미션 서밋을 다녀왔다. 그때 제프 로그 목사님(미 남침례교단 CEO, 교단총무)과 대화를 하며 남침례교단의 전도 상황에 대해 물었다. 전도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했던 질문이다. 그런데 목사님의 답변은 전혀 달랐다. 작년에 침례 받은 숫자가 전년도 보다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IMB 선교사는 400명 미만의 인원을 뽑는데 지원자는 1500명 정도라는 말을 들었다. 지원자 중에 25%만 선별해서 보낼 정도라고 했다.



언제부터인가 전도가 힘든 시기이고 선교의 열정이 식어간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런 가운데서 듣게 된 반가운 소식이다. 사실 돌아보면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와 환경은 없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사람들은 반대를 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은 쫓아 다니면서 박해를 했다. 결국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증인 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신다. 또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다.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의미다.

2000년 전에도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셨듯이, 2025년에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의 환경에 갇혀 계실 리 없다. 그러니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된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 가나안 땅에 보냈던 12 정탐꾼 중 10명은 상황만 보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힘들다. 할 수 없다. 그때 단 두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며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영적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사명자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주민(국제 이동인) 선교 이론적 배경



김영학 선교사 (FMB / 국내외국인선교지부)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은 단지 이주민이 ‘정착’하는 공간을 넘어, 전 세계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글로벌 이동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통과’하는 외국인들은 기존의 정착형 이주민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국제 이동자로 주목받아야 한다. 이들은 한국에 ‘정착’하기보다는, 한국을 하나의 정거장으로 삼아 잠시 머문 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들을 정착 이주민의 관점이 아닌, ‘이동자’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새로운 선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글은 기존의 이주민 선교 범주를 넘어, ‘국제 이동인 선교’라는 확장된 틀 안에서 한국을 통과하는 외국인을 위한 새로운 선교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 이동인을 위한 선교의 이론적 배경을 네 가지 측면에서 조명한다. 첫째, 성경적 배경에서는 신약성경, 특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국제 이동인을 통한 선교 사례를 살펴본다. 둘째, 역사적 배경에서는 조선 개화기 지식인들이 외국에 체류하며 경험한 선교적 만남의 역사를 고찰한다. 셋째, 신학적 배경에서는 구심적-원심적 선교(Centripetal-Centrifugal Mission)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을 ‘전이(transit)’ 또는 ‘통과(passage)’의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한다. 이러한 신학적 관점은 국내 타문화권 선교 전략의 대상을, 한국에 정착을 목적으로 이주한 이주민에 한정하지 않고, 초국적 흐름(transnational flows)과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의 현실 속에서 한국을 경유하는 국제 이동인들로 확장한

다. 넷째, 사회학적 배경에서는 존 어리(John Urry)가 제시한 ‘이주(migration)’와 구분되는 ‘이동(mobility)’ 개념을 바탕으로, 정착형 이주민과는 다른 국제 이동인의 사회학적 특성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을 ‘통과’하는 국제 이동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커뮤니티 정거장 교회(Station Church)의 전략적 개척 모델을 제안한다. 국제 이동자들은 마치 예루살렘에서 단기 일정을 마친 후 귀국하던 에티오피아 내시, 가이사라에서 파견된 로마 백부장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국’이라는 지점을 통과하며 선교적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 머무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열방으로 흩어질 때, 그 만남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귀한 한 조각이 되기를 기대한다.

성경적 배경: 전이공간에서의 국제 이동인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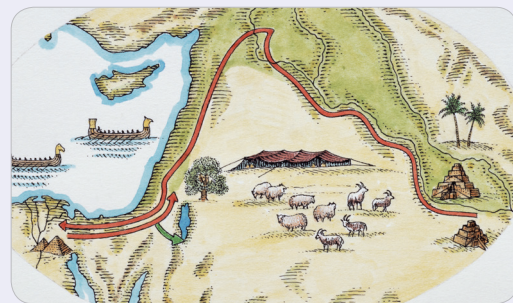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정착지 중심의 사역을 넘어, 이동 중에 있는 자들, 곧 나그네와 전이자의 삶을 통해 전개되고 있음을 증언한다. 이동인은 단순한 구속사의 배경적 존재가 아니라, 복음의 연결점이자 전파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특히 전이공간에서의 선교는 21세기 국제인을 향한 사역을 정당화하고 활성화하는 중요한 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성경은 그의 삶을 나그네(순례자)와 통과자로 묘사한다(히 11:9). 그의 후손인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이어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약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전이적 삶을 지속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된다. 모세 또한 미디안에서의 체류와 광야 생활을 통해 ‘전이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세계 속에서 사는 자로서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구약은 정주적 삶보다는 이동 중의 만남과 체류 중의 변화를 통해 선교적 목적이 실현됨을 보여준다. 성경은 복음이 민족적, 문화적, 국가적 장벽을 넘어 확장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더욱 명확히 드러낸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에 열방의 연결자들을 보내셨고, 동시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통해 구심력과 원심력 선교를 동시에 지시하셨다(마 28:19, 행 1:8; 2:5).

사도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 일시 체류중인 로마 제국의 파견 장교인 고넬료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며(행 10), 하나님의 선교가 더 이상 민족과 문화의 경계에 갇히지 않음을 증언한다. 바울 또한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등 국제적 항구 도시를 통과하면서 다른 통과 국제 이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롬 16). 이들 국제 도시는 국제 이동자들의 정거장으로 복음의 국제적 확장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기능했다. 그중 안디옥 교회는 국제 이동인 선교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교회는 국제 이동인들로 형성된 공동체로, 아프리카·아시아·유럽 출신의 국제인들이 함께 구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단순히 안디옥에 정착한 이민자가 아니라, 이동 통과자로서 국제 선교적 연결망을 이루는 국제 이동인 네트워크의 구성원이었다. 안디옥 교회의 세계 선교는 먼 곳에 있는 추상적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교회안에 이미 연결된 국제 이동인들의 실질적 네트워크였다(행 13:1-3).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 내시는 국제 이동인 선교의 전형적 사례이다.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뒤 가사로 이동 중이었고, 이 전이 경로에서 빌립과 조우하게 된다. 그는 정착형 이민자나 장기 체류자가 아닌, 국제 이동인에 해당한다. 빌립은 이 전이의 순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복음을 전하였다. 그는 내시가 사용하던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로 대화하며,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를 바탕으로 복음을 설명했다. 전이 상태의 유연성과 개방성 속에서, 내시는 복음을 즉각 받아들이고 고국으로 복음을 가지고 돌아갔다. 이 사건은 이동 국제인 '전이 선교(Transit Mission)'가 단순히 목적지에서가 아니라, 전이과정(Transit Process) 자체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본보기이다.

이상의 성경적 사례들은 국제 이동인이 단순한 주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서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대상이자 연결자임을 증언한다. 하나님은 국제 이동인을 구심력 선교로 예루살렘과 같은 중심지로 모으시고, 복음을 받은 그들을 다시 본국이나 제3국으로 원심력 선교로 파송하신다. 이러한 동시적 선교 운동은 오늘날 한국과 같은 전이공간(transit space)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동 국제인은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다시 그 복음을 들고 이동하는 21세기형 순례자이자 복음의 전달자가 된다. 성경은 이들이 머무는 동안과 이동하는 동안 모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교의 장으로 보여준다.



역사적 배경 : 조선 개화기 국제 이동인 선교

조선 개화기는 한국 근대화의 시기이자, 복음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이 시기의 선교는 단순한 서구 선교사의 파송 사역이 아니라, 국제적 접촉과 이동 중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복합적 선교 네트워크의 산물이었다. 그 중심에는 국제 이동인이라는 전이적 존재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조선 선교의 숨은 연결자이자 해석자로 기능했다.

조선에 도착한 미국 초임 선교사들에게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라”고 조언했던 월남 이상재의 말은, 조선인의 강한 민족 정체성과 민감한 시대적 분위기를 드러낸다. 미국 선교사들은 미국적 신앙과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 채 조선을 찾았지만, 조선인은 중국이나 일본과 동일시할 수 없는 독자적 민족의식과 집단 정체성을 지닌 존재였다. 특히 국권 상실의 위기 속에 있던 조선인은 서구 강국에서 온 이들을 단순한 외국인으로만 보지 않았으며, 이들과의 만남은 국제 정치와 민족 생존의 접점이었다. 선교사들 또한 처음에는 조선을 중국과 일본 선교의 연장선으로 보았지만, 실제로 마주한 조선인은 전혀 다른 역사적 감수성과 민족적 자존감을 지닌 선교 대상이었다. 결국, 양국 인물들은 서로 다른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선교'라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에서 교차하게 된 것이다.

조선 선교의 실질적 문은 1882년 박영효 수신사 일행의 비공식 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국제 이동인 이수정을 통해 열리게 되었다. 그는 일본에서 기독교인들과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곧바로 한글 신약 성경 번역을 시작하였다. 이수정은 일본에 정착한 이주민이 아닌, 단기간 일본을 방문한 전이적 국제 이동인이었다. 그러나 이 짧은 만남은 조선 선교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수정은 단순한 복음 수용자가 아니라, 문화와 언어, 민족의 경계를 넘는 복음의 중개자였다. 이는 오늘날 국제 이동인을 선교의 '대상'이자 동시에 '주체'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개화기 조선에는 이수정 외에도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 등 해외에 체류하며 국제적 관계망을 형성한 국제 이동인들이 존재했다. 이들은 유학, 외교, 망명 등 다양한 이유로 미국, 일본,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고, 미국 선교사들과 가장 빠르게 접촉한 조선인 집단이었다. 이들은 단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조선과 서구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적·언어적·정치적 중간자였다. 미국 선교사들은 이들을 조

선 입국 전에 해외에서 먼저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 만남은 조선 선교의 토대가 되었다.

국제 이동인들은 조선 내 민족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동시에, 선교사들과의 복합적 선교 관계망을 통해 복음의 경로를 개척하는 핵심 연결자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국가, 민족, 문화, 종교의 경계를 넘나들며,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적 여백과 통로를 열어준 선교적 주체였다. 실제로 이수정, 윤치호, 이승만 등은 조선의 근대화와 복음 확산, 더 나아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역사적 국제 이동인들이었다. 그들의 전이적 정체성과 복음적 만남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 국제 이동인을 통한 선교의 전략적 가능성을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상기시켜준다.

신학적 배경

전통적으로 구약성경의 선교는 ‘구심력적 선교(centripetal mission)’, 신약성경의 선교는 ‘원심력적 선교(centrifugal mission)’로 구분되어 이해되어 왔다. 구심력적 선교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열방을 하나님 백성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의 선교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열방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선교를 진행하셨다(조귀삼 2013, 181-183). 이스라엘은 그 자체로 이방의 빛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사 49:6), 열방은 시온으로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사 2:2-3). 반면, 신약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중심으로 한 ‘원심력적 선교’, 즉 “땅끝까지 이르러”(행 1:8) 나아가는 선교로 이해되어 왔다. 이 관점에서 서구 교회는 선교를 ‘보내는 사역’으로 간주하며, 원심력적 선교에 치우친 방식으로 발전하였다(Newbigin 2012, 17). 그 결과 선교는 주로 해외 파송과 외부 확장 중심으로 국한되었고, 구심력적 선교의 균형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의 선교는 단일 방향성이 아니라, 원심력과 구심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적 선교(directional duality)’를 보여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원심력의 부르심을 받고(창 12:1), 동시에 그의 삶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였다(구심력). 이사야는 모든 민족이 여호와와 산으로 몰려오는 구심력적 비전(사 2:2)을 선포함과 동시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사 49:6)는 말씀을 통해 세상으로 파송되는 원심력적 사명을 함께 제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

상명령 또한 “가라”(마 28:19)는 원심의 명령과,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 예루살렘에 각국의 민족이 몰려든 구심적 사건(행 2:5-11)이 동시에 존재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교를 단일 방향이 아닌, 구심과 원심의 긴장과 균형 속에서 이끄신다.

이러한 구심-원심의 동시성은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의 사역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초기 안디옥은 예루살렘의 박해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모여 형성된 원심력 선교의 결과였다. 그러나 곧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구심의 중심지이자 원심의 출발점이 되었다(행 13:1-3). 안디옥 교회는 구심적 선교지이자 원심적 선교 기지로서 이중적 정체성을 지녔으며, 이 두 방향의 선교가 동시적이며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모델이 되었다.

이는 선교가 어느 한 방향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자체가 구심력과 원심력이 궤도를 유지하며 작동하는 우주적 움직임임을 보여준다. 선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력에 의해 전 지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사회학적 배경

20세기까지 사회학은 주로 ‘정착(settlement)’을 전제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급증한 국제 인구 이동,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은 기존 사회학적 분석 틀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영국 사회학자 존 어리(John Urry)는 ‘모빌리티 패러다임(Mobility Paradigm)’을 제안하며, 고정된 장소 중심이 아니라 이동(mobility)을 중심으로 사회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사회를 ‘흐름의 사회(society of flows)’라고 설명하면서, 사람들의 관계와 정체성이 더 이상 고정된 장소에 의해 형성되지 않고, 이동 경로와 네트워크, 경계의 접점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분석 단위는 장소가 아니라 경로이며, 사회적 행위자들 역시 고정된 공동체 구성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이들을 ‘도처에 있는 사람들(people on the move)’로 지칭하며, 이들이 유동적이고 경계적인 정체성을 지닌 새로운 사회 주체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선교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기존의 이주민 중심 선교가 정착자들을 위한 선교였다면, 오늘날의 선교는 단기 체류자, 유학생, 디지털 노마드, 여행자

등과 같은 국제 이동인에게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선교는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만남의 경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선교 역시 고정된 문화나 지역을 넘어, 이동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유적 만남과 공동체 형성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존 어리의 모빌리티 이론은 선교가 정착 기반의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이동 중 만나는 이들과의 경로 중심 선교로 전환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선교에 있어 ‘경유의 영성(spirituality of transit)’이라는 새로운 상상력을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 이후, 개인은 이제 국가, 민족, 문화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의 가치와 선택에 따라 정체성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 과거에는 정체성이 거주지, 민족, 언어, 문화 등 고정된 요소와 동일시되었지만, 오늘날은 온라인 네트워크의 확장과 다문화적 경험을 통해 보다 유동적이고 다중적인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다. 국제 이동인은 하나의 국가, 민족, 문화, 종교에 완전히 귀속되지 않고, 경계를 넘나드는(boundary-shattering) 탈경계적 정체성을 형성한다(Flemming 2022, 40). 한국이라는 전이공간(transitory space)에서, 이들은 본국에서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소속감을 탐색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정체성의 재구성과 관계망의 재편성이라는 본질적 변화를 수반한다. 기술 발달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며, 사람들을 국가와 민족, 언어, 문화를 넘는 탈경계적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미놀로(Mignolo)는 “어디에 있는가(where you are)”보다 “어디서 생각하는가(where you think)”가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말한다(Mignolo 2009, 235-245). 이는 영토 기반 정체성에서 인지적·관계적 기반 정체성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국제 이동인은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히 물리적 국경을 넘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영적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는 글로벌 존재이다.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이들은 본국 공동체와는 다른 세계관과 관계성, 새로운 소속감을 경험한다. 성경은 이러한 탈경계적 정체성 형성의 영적 기초를 제공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단지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국가(고향), 민족(친척), 문화(아버지의 집)를 넘어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향한 부르심이었다. 아브람은 이에 응답함으로써, 열방을 섬기는 국제 이동인의 대표자가 되었다(창 12:1-3).

오늘날의 국제 이동인은 초연결 사회 속에서 영토 기반이 아닌 관계성과 목적 중심

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한국이라는 전이공간에서 새로운 정체성의 재구성을 경험하며, 이는 곧 새로운 선교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들은 자국민도, 정착 이주민도 아닌, 전통적 범주를 넘어서는 ‘국제 이동인’으로서, 선교 전략의 전환점에서 핵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대상들이다.

빅터 터너(Victor Turner)는 아놀드 반 게넵(Arnold Van Gennep)이 제시한 통과의례(rites of passage)의 세 단계—분리(separation), 전이(liminality), 통합(incorporation)—가운데 특히 전이단계(liminality)에 주목하였다(Turner 2018, 15). 그는 이 전이단계를 통과하는 이들이 사회적 위계와 구조를 일시적으로 떠나 형성하는 공동체를 코뮤니타스(communitas)라고 명명했다. 이 개념은 한국을 일시적으로 경유하는 국제 이동인이 겪는 전이적 경험과 공동체 선호 양상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이론적 틀이다.

한국을 방문하거나 일정 기간 체류하는 국제 이동인은 정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이동자(passenger)로서 전이적 상태(liminal period)를 경험한다. 이들은 본국의 구조적 공동체에서 벗어나, 한국이라는 중간 지대에서 “이도 저도 아닌 존재(betwixt and between)”로 살아가며, 같은 전이 상태에 있는 다른 국제 이동인들과 함께 리미널 정체성(liminal identity)을 형성한다(Turner 2018, 298).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동체는 터너가 말한 코뮤니타스적 특성을 지닌다—즉, 위계가 없고, 자발적이며, 구조를 초월한 개방적 연대이다. 이러한 코뮤니타스적 커뮤니티는 기존 한국 사회 내 민족·국가·문화 중심의 커뮤니티와는 구별된다. 국제 이동인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자국의 민족 기반 공동체를 떠나, 새로운 정체성과 공동체 경험을 하게 된다. 이동성과 경유성을 공유하는 이들은 통과자로서의 공통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연결되며, 이는 곧 국제적 코뮤니타스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터너가 말한 순례(pilgrimage)의 전이적 특성은 오늘날 국제 이동인의 이동과 매우 유사하다. 그는 순례를 단지 특정 장소를 향한 여정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구조를 떠나 비구조적 공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로 보았다(Turner 2018, 245). 이는 한국을 통과하는 국제 이동인이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전이적 순례자(liminal pilgrims)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 이동인을 향한 선교적 접근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머무는 전이의 과정 속에서 코뮤니타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국제 이동인의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 개발은 곧 선교 전략

의 핵심 지점이며, 그 중심은 ‘리미널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위한 비구조적 공동체’에 있다.

경유 선교(transit mission)로의 패러다임 전환 : 국제 이동인을 위한 선교

21세기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인의 최종 목적지(destination)가 아니라, 본국 혹은 제3국으로 향하는 여정 속 ‘경유지(transit space)’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와 교회는 여전히 외국인을 ‘정착 이주민’이라는 틀에 가두고 있으며, 이는 선교 전략의 협소함과 실천적 제약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 영구 정착하려는 외국인은 소수이며, 대부분은 일정 기간 체류 후 떠나는 국제 이동인(global mobile people)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주민 선교’에서 ‘국제 이동인 선교’로의 선교 인식의 전환(paradigm shift)을 요청한다. 국제 이동인은 단순한 선교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고 흠여지는 선교적 주체로서, 관계 중심적이고 경로 기반의 리미널 공동체(liminal communitas) 안에서 새로운 복음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들은 전통적인 지역 교회 모델을 넘어선 열방 연결자(missional connectors)이며, 복음 전파의 다리 역할을 한다.

성경은 이미 이러한 경유 선교(transit mission)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내시, 고넬료, 바울, 그리고 조선의 이수정과 같은 인물들은 이동 중 복음을 만나고 다시 흠여져 복음을 전달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들은 단지 선교를 ‘받는 자’가 아닌, 복음을 재매개하고 확산시키는 선교 네트워크의 중심자로 기능하였다.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선교는 정착이나 단선적 흐름이 아닌, 구심력(centripetal)과 원심력(centrifugal)이 동시에 작동하는 역동적 흐름이다. 하나님은 한국이라는 ‘경유 공간(transit space)’에 열방을 모으시고 다시 파송하시는 중심 허브로 사용하고 계신다. 이로 인해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의 통로이자 허브(hub)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자각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정착 중심에서 이동 중심, 공간 중심에서 경로 중심, 구조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의 변화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국제 이동인 선교’에 대한 실천적 모델로서 국제커뮤니티 정거장 교회(Station Church)의 개척 전략을 제안한다.

정거장 교회는 이동자 중심, 참여형 구조, 다국적 네트워크가 가능한 개방형 공동체

로, 국제 이동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에 최적화된 선교 플랫폼이다. 바울의 선교처럼, 이 교회는 정착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단기 체류자와 경유자를 위한 복음의 정거장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조선 개화기의 이수정이나 사도행전의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국제적 키맨(key man)들이 한국을 지나고 있다. 이들을 만나고 연결하는 것은, 단지 미래 선교의 가능성 차원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의 현실이다. 한국 교회는 이 흐름 속에서 ‘이주민’이 아닌 ‘순례자(pilgrims)’로 그들을 맞이하며,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수레로 달려가는’ 창조적 선교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행 8:29)

이 말씀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국제 이동인을 향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선교의 방향이자 초청이다.

참고문헌

- 김예녹, 『21세기 도시 선교와 새로운 인류의 출현』, 서울: 신국제출판사, 2019.
- 조귀삼, 『구약성경과 선교』,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13.
- ———, “구심력의 다문화 유입에 따른 NGO의 선교 역할,” 『복음과 선교』 제24집 (2013): 176–219.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과천: 법무부, 2024. <https://www.immigration.go.kr/>
- Atali, Jacques, 『호모 노마드 – 유목하는 인간』, 이효숙 역, 서울: 웅진닷컴, 2005. (*L'Homme Nomade*)
- Klaus, Schwab,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역, 서울: 메가스터디북스,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Newbigin, Lesslie,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홍병룡 역, 서울: IVP, 2007.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 ———, 『오픈 시크릿』, 홍병룡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2. (*The Open Secret*)
- Ott, Craig, and Stephen J. Strauss, 『선교신학의 도전』, 변진석, 엄주연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Encountering Theology of Mission*)
- Turner, Victor, 『인간사회와 상징행위』, 강대훈 역, 서울: 황소걸음, 2018. (*Dramas, Fields, and Metaphors: Symbolic Action in Human Society*)
- Urry, John,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윤여일 역, 서울: 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00. (*Sociology Beyond Societies: Mobiliti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이주민 선교의 실태와 전망, 이에 따른 시니어선교사들의 역할과 기대

장인식 선교사 (이샤야, 김종철, 최은영, 임효진)

2024년 MUT 시니어 훈련에서 우리 그룹이 부여 받은 연구 주제는 “귀국 후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이었다. 여러 차례의 토의를 거친 끝에 세계화와 국내외 이주 증가로 인해 한국 사회는 다문화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주민 선교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 방향은 이주민 선교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시니어선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선교적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기로 했다.

I. 서론

한국은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 국가로 인식되었지만, 최근 수십 년간 이주민 수가 급증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2023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인구는 약 2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에 달한다.¹⁾ 이러한 현실은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선교적 사명을 부여한다. 본 연구는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주민 선교의 배경과 필요성

1. 세계적 이주 추세와 한국의 변화

이주민의 증가는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요인으로 비롯된다.²⁾ 한국은 이제 노동 이주민, 결혼 이주여성, 유학생, 난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들과 더불어 살아

1) 통계청, 『2023년 국내 체류 외국인 통계』.

2) Castles, S. & Miller, M.J., The Age of Migration, (Guilford Press, 2009), p.21.

가는 사회가 되었다.³⁾

2. 성경적 근거

성경은 이방인을 환대하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한다(레 19:34; 마 25:35). 사도행전에서도 이주민을 통한 복음 확산의 모델이 제시된다(행 8:26-40). 이는 현대 이주민 선교의 성경적 정당성을 제공한다.⁴⁾

III.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 현황

최근 5년간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체류 외국인 수는 2016년 200만명, 2019년 252만명을 각각 돌파하다가 코로나19로 주춤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 외국인 300만명 시대도 머지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체류 외국인 250만여 명 중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기 위해 당국에 등록하거나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은 188만1천921명(75.0%)이고, 단기체류자는 62만 5663명(25.0%)이다.

국적별로는 중국(94만 2천 395명)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베트남(27만 1천 712명), 태국(20만 2천 121명), 미국(16만 1천 895명), 우즈베키스탄(8만 7천 698명) 등 순이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42만 3천 675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법체류율은 2021년(19.9%)과 2022년(18.3%)보다 감소한 16.9%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0년(15만 3천 361명)부터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해 22만 6천 507명을 기록했다. 학위 과정 등 유학을 온 외국인이 15만 2천 94명, 한국어 등 연수를 위해 온 외국인이 7만 4천 413명이었다.

유학생 국적은 베트남(8만 343명), 중국(7만 888명), 몽골(1만 3천 802명), 우즈베키스탄(1만 2천 530명), 미얀마(5천 64명) 등 순이었다.

1. 이주민 교회 및 사역 유형

한국 내 이주민 교회는 약 1,000여 개로 추산되며, 그 중 다수는 필리핀, 베트남, 중국, 네팔 등의 국적을 배경으로 한다.⁵⁾ 선교 방식은 언어 예배, 생활 지원, 법률 상담, 직

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외국인 정책 연감』.

4)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Orbis Books, 1991), p.487.

5) 한국기독교이주민선교연합회(KMMS), 『이주민 교회 현황 보고서』, 2022.

업 훈련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2. FMB 국내 외국인선교 지부 도시별 사역 현황

- 김해 : 러시아권 고려인 가정, 몽골 현지 지도자 양육, 우즈베크 교회 센터
- 광명 : 캠퍼스 유학생 사역(이슬람 대상)
- 대전 : 인도인 가정과 유학생
- 서울 : 비즈니스를 통한 사역, 다문화 가정 사역, 중국인 제자훈련, “러시아선교 교회”사역
- 안성 : 다문화가정 사역, 청소년 사역과 인도 방문 집회
- 세종 : 국내 일본인을 대상으로 사역, 다문화 가정 사역 및 전도 사역
- 아산 : 외국인 선교교회
- 인천 : 라드니교회를 통해 러시아어 사용 이주민사역, 미자립 교회 방문 위로 사역
- 용인 : 온라인을 통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제자 사역
- 유성 : 인도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역, 국내 외국인 근로자 사역
- 청주 : 세종아우름교회를 통해 러시아권 이주민 대상으로 사역
- 충주 :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 근로자들과 충주친구들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예배 및 한국어 수업을 진행
- 포항 : 포항국제인교회를 통해 유학생과 국제인을 위한 사역을 진행

3.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두 교회의 이주민사역 모델

온누리교회 이주민 사역 : 온누리교회는 국내 이주민 선교 및 다문화 가정 복음화를 목적으로 온누리M미션부를 설립하여 사역하고 있다. 온누리M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은 이와 같다.

- (1) 글로벌 예배 : 온누리교회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다국어 예배를 운영하고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진행되는 예배를 통해 이주민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 러시아, 몽골, 네팔, 아랍

안산 온누리M센터 : 러시아, 몽골,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다문화가정어린이

평택, 인천 온누리교회 : 몽골

- (2) 이주민 아카데미 : 한국어, 컴퓨터, 한국문화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스타트리 아카데미(안산 원곡동 소재)를 통해 다문화 어린이들에게 영어와 신앙 교육 진행

- (3) 이주민 의료 지원 :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의사들과 협력하여 무료 진료를 제공하며 필요시 일부 약품과 의료기기도 지원한다.
- (4) 심리상담 및 정서적지원 : 많은 이주민들이 겪는 심리적 고립과 문화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5) 국제 자원봉사와 재난 구호 :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속한 본국에서의 재난 및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한 국제 구호 활동을 한다.
- (6) 직업훈련 프로그램 : 이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주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 (7) 외국인가정방문 및 생활지원 : 온누리교회 사역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이주민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거나 자녀 교육 문제를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시거처 쉼터 운영(이태원 러시아 쉼터, 안산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쉼터, 군포 네팔 센터 운영)
- (8) 양육 사역 : 한국 내 체류기간이 비교적 짧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양육체계인 ‘ABC양육’을 자체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부산 수영로교회 이주민 사역 - 수영로교회 이주민 사역센터 김해 조이센터

- (1) 이주민예배 및 다문화예배 지원
- (2) 생활밀착형 한국어교육 및 직업교육
- (3) 법률 및 의료 상담서비스
- (4) 문화교류 및 축제행사
- (5) 긴급생활지원 및 생필품나눔 사역
- (6) 자녀 교육 지원 : 방과후 돌봄학교

4. 이주민사역의 강점과 한계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된 이주민 사역의 강점으로는 타문화에 대한 교회의 인식 변화와 사회봉사 확대가 있다. 그러나 언어 장벽, 교단 간 협력 부족, 사역자 재정 지원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지속된다.⁶⁾

6) 이성훈,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 사역에 관한 연구」, 『선교와 신학』 제35권 (2021), 88-91쪽.

Ⅳ. 이주민 선교의 도전 과제

한국교회가 이주민 선교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 주안점을 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통합적인 사역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협력하여 중복 사역을 줄이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별 혹은 국가별로 이주민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주민의 국적, 지역별 분포, 필요 등을 파악해 사역 방향을 정하고 사역 자료와 경험을 교류하여 선교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이주민선교포럼과 이주민 선교훈련원, 이주민 선교의 전략적인 접근들을 많은 단체나 교회 또는 선교지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했던 시니어 선교사들의 이주민 선교 참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여러 그룹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사역 네트워크가 너무나 무질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2. 이주민 선교의 맞춤형 선교 전략

이주민들의 문화, 종교적 배경,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이들이 한국교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교회가 이주민 사역팀을 구성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주민의 문화적 배경과 역사에 대해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민과의 언어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통번역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주민들이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민의 문화와 종교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접근할 경우, 선교의 효과는 낮아질 수 있다.⁷⁾

이주민들의 필요를 세밀히 파악하여, 생활 정착 지원, 취업 알선, 의료 서비스, 자녀 교육 등을 제공하는 전인적 선교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와 교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신뢰를 쌓아 복음을 나눌 기회를 늘릴 수 있다.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를 명확히 세워, 사역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7) 홍민기,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 정책 분석』, 『신학과 선교』 제40권 (2020), 57쪽.



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인 관계 맺기와 제자 양육을 통한 장기적 선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3. 이주민의 자립적 신앙 성장 도모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적인 이주민 교회를 세우거나 그들이 중심이 되는 모임을 지원해야 한다. 이주민 교회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그들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민들이 성경과 신앙 서적을 모국어로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앙 교육 자료와 설교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정책적·제도적 뒷받침

이주민 선교는 주로 개인적 헌신이나 소규모 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가적 정책이나 교단 차원의 전략이 부족하다.⁸⁾

이주민 선교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주민을 위한 복지 정책과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8) 박은영,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과 선교』, 『기독교문화연구』 제15집 (2019), 122쪽.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회 내에 법률 지원 팀을 마련하거나, 법률 단체와 협력해 이주민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5. 이주민 선교의 전문성 강화

이주민 선교를 담당하는 봉사자와 사역자들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주민과의 소통 기술, 심리 상담, 사회 복지, 갈등 해결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사역자와 봉사자들이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어 이주민 선교에 대한 신앙적 소명과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지속적인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선교 대상이 아닌 선교 주체로 이주민을 세우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이주민 지도자 훈련과 네트워크 강화가 필수적이다.⁹⁾

이주민 선교의 핵심은 이주민들의 다양한 필요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립하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와 사역자들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며, 서로 협력하여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주민 선교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V. 전망과 제언

1. 이주민 선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니어 선교사의 역할 확대

여기서 언급하는 시니어 선교사란 연령적 의미에서 시니어를 지칭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면에서의 시니어까지 포함된 포괄적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이주민 선교에 있어 시니어 선교사는 풍부한 삶의 경험과 신앙의 깊이를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이주민들이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멘토와 지지자가 되어 줄 수 있어, 이들이 복음에 마음을 열고 신앙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아래에 시니어 선교사의 역할과 기대되는 점을 정리해 보았다.

(1) 멘토링과 관계 형성의 전문가 :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와 교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신앙적 멘토가 되어 줄 수 있다. 인생과 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도

9) Cho, Bong Rin, "Immigrant Ministry and Empowerment", Asian Mission Studies, Vol. 23 (2020), pp. 67-72.

울 수 있다.

(2) 문화적 다리 역할 수행 :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시니어 선교사는 이주민들과 한국 사회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조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양쪽의 문화를 존중하며 이주민들이 문화적 충돌 없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니어 선교사는 자신이 일했던 특정 지역의 언어에 능숙하기 때문에 상호 이해를 돕는 대화의 다리가 되어 이주민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고,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3) 이주민 사역 자원봉사자 양성과 교육 : 시니어 선교사는 후배 사역자들에게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고 신앙적 소명을 전할 수 있다. 자신이 느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의 중요성을 통해 동역자들이 사역에 대한 헌신을 다지도록 이끌 수 있다. 시니어 선교사는 이주민 사역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4) 기도와 중보자 역할 : 시니어 선교사는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이주민 사역을 위한 기도의 등불이 되어 줄 수 있다. 시니어 선교사는 이주민 선교를 위한 영적 방패로서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써 영적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다.

시니어 선교사는 이주민 선교에서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며, 그들의 신앙적 성장과 사회적 적응을 돕는 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들의 경험과 신앙의 깊이는 이주민 선교의 질을 높이고,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와 교회에 뿌리내리도록 돕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2. 현지화와 공동체 중심 사역 강화

이주민 선교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주민들이 신앙 안에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형 공동체 형성과 신앙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교회가 이주민을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이주민이 주체가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¹⁰⁾

3. 다문화 교육과 교회 내 포용성 제고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요구된다. 이는 교

10) 김진수, 『현지화 선교의 실제』, (CLC, 2018), 132쪽.

회 내 갈등을 줄이고 포용적 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¹¹⁾

4.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 활용

가장 효율적인 이주민 선교를 위한 포용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아래 세 가지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1. 총회와 지방회와의 협력

- (1) 이주민 선교참여 현황 조사: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주민들이 주로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어떤 교회에 참석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한다.
- (2) 이주민 사역 교회 파악: 이미 사역 중인 교회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성공 사례와 도전 과제를 공유한다.
- (3) 이주민의 날 및 초청 행사: 각 지방회 별로 이주민의 날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이주민을 환영한다.
- (4) 이주민 사역 센터 설립: 교회 또는 지역 내 적절한 건물을 활용하여 이주민 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 FMB와의 협력: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이주민 선교를 위한 전문 컨설팅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주민 선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이주민 선교에 우리가 가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동의 창구를 열어서 이 공동의 창구가 향후에 뻗어 나가야 할 미래 선교 전략적인 전향적 포석을 마련해야 한다. 이 창구를 통하여 FMB 국내 외국인지부와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니어선교사들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3. 지역 교회와의 협력 :

- (1) 이주민 선교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지역교회와 선교사 간의 교량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2) 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회 또는 지역 내 언어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이주민들의 한국어 습득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3) 봉사자 모집 및 교육 : 이주민 사역에 필요한 봉사자를 모집하고, 그들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4) 단기 선교 프로그램 협력 : 교회와 연결된 이주민들의 고국을 방문하여 가족들을 전도하는 단기 선교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지역교회 중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주민 센터와의 협력:

- (1) 법률 지원 제공 : 법률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주민들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 (2) 직업 교육 및 기회 제공 : 이주민들에게 직업 훈련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 (3) 문화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이주민과 지역 주민 간의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킨다.
- (4) 주거 지원 제공 :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와 주거지 소개를 제공한다.
- (5) 사회적 연결망 형성 지원 :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6) 건강 관리 지원 : 의료 서비스와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주민은 본국과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지닌 존재로, 본국 선교와의 연계를 통해 '리버스 선교(reverse mission)'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¹²⁾

VI. 결론

이주민 선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사명이다. 한국 교회는 이주민을 복음의 통로로 삼아,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 전략 수립과 지속 가능한 실천이 요청된다.

11) World Council of Churches, Mission and Evangelism in Unity Today, 2013.

12) Philip Jenkins, The Next Christendom,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 102-104.

국내 이주민 선교이야기



문사진 선교사 (FMB / 국내외국인선교지부)



요즘 길을 가다보면 너무나 쉽게 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300만명시대. 이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시대, 이주민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에 국내 선교는 이제는 세계선교의 필수이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국내 이주민 선교사역을 시작하였고, 교육선교를 준비하기위해 기독교 대안학교인 글로벌선진학교에서 2년간 교육선교를 배웠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던 겨울, 청주에서 올라라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자매가 한국에 이주민을 위한 교회와 센터가 많지만 정말 본인들을 위한 교회와 센터를 청주에서 세워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청주땅에 마음을 주셔서 아무 연고없이 청주땅으로 가서 러시아 언어권 이주민교회인 아우름교회와 GVC글로벌비전센터라는 선교센터를 개척하였습니다.

당시 FMB소속 국내 소속 선교사는 23unit이었는데 국내 파송을 받고, 국내선교사역을 하는 가정은 저희 가정이 유일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



고, 선교지원을 받기 쉽지 않아 3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하고 글로벌선진학교의 후원과 지원으로 기자재를 마련하여 국내 이주민 교육선교와 목회 사역이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청주 봉명동지역은 당시 외국인 범죄율 1위 지역이었고, 청주지역이 2만 5천명의 외국인들 중 러시아 언어권의 사람들은 1만명 가까이 되었는데 봉명초등학교에는 학생들의 60%이상이 이미 중앙아시아 러시아 언어권 아이들이 한국학생들보다 수가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와 선교센터였지만 주일 몇 명의 고려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언어가 통하면 마음도 통한다”는 믿음으로 한국어 수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아우름교회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7개의 나라(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과 한국)사람들이 모여 러시아어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GVC 선교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여 좀더 전문적으로 다양한 한국 체험, 이주민 음악회, 다문화 축구팀 GVC FC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주민 아이들은 한국이라는 땅에서 웃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느날 안드레이라는 청년이 비자 연장문제로 저에게 도움을 청하러 와서 출입국 사무소에 함께 가서 비자 연장이 되도록 도우려 애를 썼습니다. 안드레이는 살면서 본인이 도와준 적은 많지만 도움받은 적은 없었는데 교회가 도움을 주는 것에 감동하여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새가족임에도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고려인들은 정이 많아서 다른 집에 가거나 교회에 올 때 빈손으로 잘 오지 않고 늘 먹을 것을 사오는데 안드레이가 교회에 오면서 먹을 것을 사러 슈퍼에 갔다가 그의 친구 우크라이나 쉼냐를 만났습니다. 쉼냐는 약간 건들거리고 건달같이 거친 삶을 살아온 친구인데 일을 마치고 배가 고파서 슈퍼에 왔다가 안드레이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쉼냐가 안드레이에게 같이 맥주나 마시자고 하니 안드레이가 “나는 이제 교회 다녀서 술 안마셔. 나 지금 교회에 기도회 가는데 쉼냐 너도 같이가자~”라고 했습니다. 쉼냐는 “나 저녁식사



쉼냐, 안드레이

안해서 배고픈데...”라고 하니 안드레이가 “교회 가면 밥줘~”라고 말하고는 쥬냐를 아우름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이주민 분들은 퇴근 후 식사를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에서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날 메뉴가 라면과 떡볶이였습니다. 안드레이가 데려온 쥬냐는 그날 성령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라면과 떡볶이에 은혜를 받아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쥬냐형제는 교회는 다니는데 건달 같은 자신의 삶은 바뀌지 않은 것에 어려움을 느끼며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가 너무 좋은데 저의 삶과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삶이 바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며 살면 주께서 꼭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하실 거예요” 그렇게 쥬냐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쥬냐가 저녁에 친구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다른 외국인 세명이 쥬냐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니 참고 또 참다가 결국 외국인 세명을 때려눕히고 지갑과 여권, 차키까지 다 빼앗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날 같았으면 참 신이나고 좋았을텐데 그날 밤은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쥬냐의 마음을 만지신 거죠.

그렇게 잠을 못자고 뜯은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 빼앗았던 여권과 차키와 지갑을 다시 돌려주며 그들의 세계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 사과를 전하고 저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정말 힘들지만 그들을 용서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기도해주세요.”라고 말하고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쥬냐형제는 교회에서 쥬뽀와 드림으로 섬기며 교회의 찬양 사역자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레라

이런 사건을 시작으로 국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만나게 됩니다. GVC 선교센터에서는 러시아에서 온 레라라는 9살 여자아이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 본인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세상에서 쓸모 없는 존재라며 장기간 폭력적이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GVC 사역자들이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이고, 하나님

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레라 너를 향한 큰 계획들이 앞으로 있단다”라며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니 지금은 얼마나 밝고 자존감이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8살 글랩은 대인기피증으로 선교센터에서도 수업을 하기도 어려운 아이였는데 인내와 사랑으로 글랩을 대하다 보니 1년만에 대인기피증이 사라지고 지금은 학업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글랩

국내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이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통번역, 의료, 학업, 법률, 복지, 구제 등 모든 영역에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하니 이를 통해 교회에 나오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늘 은혜만 있으면 좋겠지만 국내선교는 해외가 아닌 한국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선교라는 인식이 적고 코로나시기와 맞물려 재정적 지원이나 선교후원이 적어 지금도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센터를 개척한지 4년째이지만 여전히 교회에서는 사례비가 없고 선교 후원금은 교회와 선교센터 운영을 위해 사용하다보니 시작부터 지금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의 필요성은 많고 사역은 넓어지는데 사역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교회와 선교센터에 많아지면 많을수록 적자의 폭이 커지는 것이 국내 선교의 현실입니다. 국내 이주민들은 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지은 빚도 갚아야 하고, 본국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합니다. 본인들도 생활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어렵게 생활하며 자립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와 선교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기에 교회와 선교센터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역이 바로 국내 선교사역입니다. 또한 저희 가정처럼 국내 파송을 받고 바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보다 은퇴선교사, 추방이나 국내선교로 전향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신데 한국의 높은 물가와 국내선교에 대해 교회들이 어떻게 국내 선교에 참여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국내 선교사역은 실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해외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다가 국내선교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 한분은 해외보다 국내가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이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수에 비해 국내로 파송되는 선교사와 전문인 선교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국내 이주민 선교의 인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선교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내이주민 선교사역이 절

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떡과 복음을 통하여 세계 선교에 변화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이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한국에서 매일 생존하듯 살아갑니다. 언어 장벽, 정체성의 혼란, 경제적 어려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손을 내밀면 이들은 한국땅에서 웃으며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새생명을 얻고 주님의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저희 청주 아우름교회와 GVC는 이들이 한국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함께 합니다.

특히 다음세대 이주민 청소년을 위해 한국어를 몰라 가기 싫은 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로, 멘토링과 심리상담, 가족캠프, 독서캠프, 청소년 복음캠프, 의료 및 생계지원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때까지... 국내에 있는 이주민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 알리고 전합니다. 이럴 때 다음세대의 리더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고, 본국에서 선교사로 활약을 하는 선교의 재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를 통해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 다시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음세대를 키웁니다. 그리고 이 국내 선교사역을 통해 변화를 봅니다. 12명의 한국인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던 최알렉산더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더 이상 학업이 어렵고, 학교생활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던 그때 GVC선교센터로 불려서 함께 이주민 청소년 축구팀 GVC FC에서 함께 축구하자고 이 아이를 품기 위해 애썼습니다. 거칠고, 몸과 마음의 상처로 분에 못이겨 하던 알렉산더는 GVC FC를 통해 대인관계와 팀워크 협동심을 배우면서 학교폭력을 이겨내고 2024년 기아대책에서 주최한 10개국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Hope Cup에서 한국팀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선교센터에서 운영하는 축구팀을 통해 학교폭력을 이겨내고, 학교생활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축구대회가 끝나고 스스로 가장먼저 찾아간 곳은 저희 선교센터 GVC가 주관한



최알렉산더



호프컵

Cup에서 한국팀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선교센터에서 운영하는 축구팀을 통해 학교폭력을 이겨내고, 학교생활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축구대회가 끝나고 스스로 가장먼저 찾아간 곳은 저희 선교센터 GVC가 주관한

청소년 복음캠프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교육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변화된 다음세대 청소년입니다.

2025년 올해 1월에는 고려인 청년과 청소년들을 데리고 필리핀 몬팔반 쓰레기마을에 단기선교를 갔습니다. 한국에서 늘 받는 사랑에 익숙하던 고려인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10일간 오로지 선교사역에만 몰두하고 쓰레기마을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책을 읽어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왜 받았는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배웠다고 간증하였습니다.



고려인 청소년 청년 필리핀 단기선교



국내 이주민 청소년복음캠프



GVC 글로벌비전센터 (선교센터)

선교센터뿐만 아니라 청주 아우름 교회내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았던 무슬림 자매가 모두에게 버림받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기를 혼자 키우며 가슴에 문제가 생겨 죽음에 임박하였을 때 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수술을 하게 하여 생명을 살렸습니다. 진짜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 자매에게 교인들이 가족이 되었을 때, 이제는 무슬림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변하여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외국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고 있습니다. 저는 카작에 4년간 살면서 무슬림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주 아우름교회는 무슬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가정이 세가정이나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국내 이주민 선교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역자와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감사와 은혜로 국내사역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저희 GVC선교센터에서는 다음세대 청년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 고려인 청년 세명을 세웠습니다. 충북대학교에 있는 교목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러시아 자매 한명을 저희에게 보내시며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릴적 부모님 두분을 일찍 하늘나라로 보내고 쉽지않은 삶으로 살았던 자매입니다. 한국말을

꽤 잘하는 이 자매는 충북대학교를 다니며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로 케밥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를 불러 이땅의 이주민, 고려인 다음세대를 위해 좀더 가치있는 일을 하자고 하며 지금 아르바이트비로 얼마 받느냐고 물었더니 100만원 정도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돈도 없으면서 그 비용만큼 GVC선교센터에서 사례할테니 다음세대 선교사역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GVC선교센터에서 사역을 하는데 통번역은 물론 한국어 수업과 청소년 모임까지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년은 핀란드에서 대학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김택수 어린이 탁구교실 출신으로 스포츠에 능하고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왔지만 한국의 현실은 고기집 식당에서 불판을 닦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인재를 공사판이나 고기집에서 불판이나 닦으며 일하는 것이 안타까워 주일예배 마치고 아르바이트해서 얼마나 버냐고 물었더니 100만원정도 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돈이 없지만 믿음으로 그 금액을 GVC선교센터에서 줄테니 같이 다음세대 선교사역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청년도 GVC 선교센터의 다음세대 비전을 보며 GVC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VC영어교사로, 축구팀 코치로, 찬양팀 반주자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GVC 선교센터는 현지인 청년 사역자들이 성장하도록 국내 이주민 선교사역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우름교회 현지인 목회자들은 사례가 전혀없고, GVC선교센터 사역자들은 받는 사례비가 너무 적어 저희 가정을 포함해 대부분 투잡을 하며 선교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선교 사역자들이 그저 4대보험만 되면 좋겠고, 투잡이 아닌 선교사역에



아우름교회

만 집중하여 국내 이주민 사역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느날 우리 현지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우리 GVC선교센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걱정 없이 GVC교육선교 사역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청년이기에 결혼도 준비해야 하고 생활도 해야 합니다. 이 국내선교사역을 계속하고 싶지만 솔직히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이주민선교 사역자들

국내 이주민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단체와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하고 지원과 선교후원을 해야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들이 국내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필요를 확인하고 기도로, 단기선교로, 재정으로, 사역자로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 현장에는 사람중심으로 떡과 복음을 통해 변화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청주 아우름교회와 GVC선교센터는 이를 위해 오늘도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고, 깨어진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마약에 손대었다 회심한 형제, 가난과 복지가 필요한 가정, 다음세대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합니다. 쉽지 않은 선교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주민 선교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떡’만이 아니라 ‘복음’이 함께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들어온 수많은 이주민들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의 대상이자, 다시 열방을 향해 나아갈 사명을 가진 잠재적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지 생계를 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선교의 접경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이들을 품고 섬기며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변화되고 그 삶이 회복되며, 언젠가는 그들의 고국과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역파송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오직 헌신된 국내 선교사들과 교회, 그리고 동역자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가능하며,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지상명령입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지금, 여기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주님의 눈물과 마음으로 오늘도 국내 이주민 선교의 현장에서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공급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침례교회는 이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서기 위해 계속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목회자 제자 훈련 사례연구



| 권오묵 선교사 (FMB / 아르헨티나)

1. 사역 내용

1)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본인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안디옥 목회자제자훈련원을 세우고 23년째 현지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소그룹(10-15명) 합숙 제자훈련을 1년 단위(10개월)로 진행하고 있다. 목회자제자훈련이라는 명칭은 일회성 교육이 아닌 평생 멘토링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교육이 지식 전달 중심(인지주의)이라면, 훈련은 반복과 실습 중심(행동주의, 경험주의)이며, 본 훈련원은 실습에 중점을 둔다.

2) 왜 이 사역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선교지에서 8년간 교회 개척을 하면서 동역하던 현지인 목회자들을 보고 주변의 목회자들을 경험해보았다. 아무런 신학적 사역적 훈련없이 목회에 뛰어들어 이들을 도와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3) 이 사역이 현장 사역에서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본인은 현지 지도자들과 신학대학원을 공동 운영하며, 신학교육의 지나친 학문 중심성과 목회현장과의 괴리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80-90%의 목회자들이 신학훈련 없이 사역하고 있으며, 훈련받은 이들도 실제 사역 준비가 부족하다. 발표자의 목회자제자훈련은 이러한 틈새를 공략한 전인격적 목회자연장교육 프로그램이다.

2. 사역의 목적(비전) : 어떤 목적(비전)을 가지고 해당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르헨티나 교회가 세계선교를 감당하고 세계교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한다. 한 교회의 수준은 목회자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3. 사역의 목표들

- 1) 사역 목표 1 : 목회자들이 성경을 귀납법적으로 연구하는 습관을 갖게 하고 해석학적 큐티(목회자 큐티, 귀납법적 큐티) 훈련을 한다.
- 2) 사역 목표 2 : 성경 중심 설교를 하는 목사를 길러낸다. 설교자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설교를 하게 한다.
- 3) 사역 목표 3 : 전도하며 영적싸움을 싸울 줄 아는 전투력 있는 목사를 길러낸다.
- 4) 사역 목표 4 : 성숙한 인격과 리더십과 글로벌 교회 의식이 있는 목사를 길러낸다.

4. 사역 환경 : 사역을 시작할 때에 사역 목표들에 비추어 봤을 때 현지의 상황은 어떠한가?

아르헨티나에는 이미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대형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흡수하는 약육강식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목회자들은 성경공부나 설교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몇 편의 설교로 평생을 사역했고, 설교 준비를 좌악시하며 직통계시와 간증 중심의 설교에 의존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설교 원고를 꺼낸다는 이유로 반발을 겪기도 했다.

5. 사역 전략 :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 왜 그 전략을 채택했는가?

1년차(귀납법적 성경연구와 강해설교)와 2년차(내러티브 성경연구와 이야기 설교)로 구성되며, 이론보다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삶과 사역의 문제를 다루는 '라이프 포메이션'(Life Formation) 시간은 상담을 전공한 사모가 인도하며, 소그룹 나눔은 '그란 파밀리아'(Gran Familia, 대가족)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적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합숙을 통한 공동생활은 훈련의 핵심이며, 자율적 책임과 리더십도 강조된다. 연 2회의 수련회는 여름엔 가족 중심, 겨울엔 리더 교육 중심으로 운영된다.

1) 1년차 훈련

1년차 훈련은 귀납법적 성경공부, 강해설교, 전도훈련을 중심으로 하며, 해석학의 기본 원리도 간략히 다룬다. 본인은 목회의 핵심을 복음전도와 설교로 보고, 영적 전투력을 갖춘 사역자와 성경을 연구해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목회자 양성을 강조한다.

- (1) 귀납법적 성경연구 : 강해설교를 위해서는 귀납법적 성경연구가 필수이며, 훈련에서는 이 습관을 기르도록 돕는다. 매달 성경 한 권을 미리 연구해온 뒤 함께 나누고 보충하며, 각 장은 서론, 내용요약, 연구, 설교 적용의 순서로 분석한다.
- (2) 강해설교 : 강해설교는 본문의 원래 의미와 오늘의 의미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 귀납법적 성경연구가 필수적이다. 본인은 매일 아침 해석학적 큐티를 실천하며 이 훈련을 지속해왔다. 강해설교 훈련에서는 본문과 당시 상황, 시대적 의미, 오늘의 상황,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다섯 가지 질문을 사용한다. 이는 본문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 바퀴와 같으며, 익숙해지면 생략 가능하다. 설교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본문의 본래 의미와 오늘의 적용을 정확히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 (3) 복음전도와 제자훈련 :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복음전도와 제자훈련이 분리되어 있지만, 본인은 이를 하나의 사역으로 본다. 전도하여 구원받은 영혼을 양육하고, 그들이 다시 전도와 양육을 이어가는 재생산이 진정한 제자훈련이다. 안디옥 목회자제자훈련원은 10개월 동안 새신자 소그룹 형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전도 경험이나 의지가 부족하다. 전도는 영적 싸움과 연결되며, 이를 통해 기도, 영적 싸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신학은 발전했지만 교회는 쇠퇴하고 있으며, 전도훈련을 통해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교회가 전투력을 잃으면 결국 쇠망하게 된다.

2) 2년차 훈련

먼저 1년차 훈련에서 배운 것들을 복습하고 점검한다. 2년차 훈련은 내러티브 성경 연구와 이야기 설교를 중심으로 가르친다.

- (1) 내러티브 성경연구 : 내러티브 성경연구는 배경, 지리, 단어를 연구하는 점에서 귀납법적 연구와 유사하지만, 특히 이야기의 구조인 플롯(서론, 전개, 갈등, 해결)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사건이 벌어진 무대(장소와 공간)를 분석하고, 등장인물들의 배경과 성격, 기질, 능력 등을 세밀히 연구해야 한다.
- (2) 이야기 설교 : 이야기는 문화와 세대를 초월한 효과적인 소통 방식이며, 구전문화가 강한 남미, 특히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이야기 설교는 매우 유익하다. 이야기 설교는 제3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3인칭 설교와,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의 시각으로 말하는 1인칭 설교로 나뉘며, 각각 객관성과 주관성을 특징으로 한다.

① 이야기 설교의 자료 : 연구 결과와 건전한 상상력 두 가지에서 나온다. 성경은 모

든 사건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자는 기자나 부검의처럼 본문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단순히 이야기를 풀어내거나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와 “왜?”를 질문하며 본문을 깊이 탐구해야 한다. 또한, 상상력을 사용하여 사건을 복원해야 하며, 이때 가능성 높은 건전한 상상을 해야 한다. 설교자는 시각적, 청각적, 후각·미각적 상상력을 통해 사건을 생생히 느끼고, 좌뇌로 분석하고 우뇌로 그림을 그려내야 한다.

② 이야기 설교의 네 가지 요소 : 첫째, 플롯이다. 플롯은 갈등의 구조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내용이다. 내용은 본문의 이야기와 핵심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셋째, 방향이다. 방향은 설교의 목적이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넷째, 이동이다. 이동은 시간적 공간적 움직임을 말한다. 움직임이 없으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③ 이야기 설교의 형태 : 첫째, 본문의 순서를 따르는 설교 형태이다. 말 그대로 본문의 순서 그대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다. 둘째, 본문의 이야기를 뒤로 미루는 형태이다. 먼저 설교의 핵심주제와 연관된 현실적인 문제나 예화를 다루고 본문의 이야기 구술하는 형태를 말한다. 셋째, 이야기 전개를 단락마다 중단하는 형태이다. 한 단락을 이야기하고 가르침과 적용을 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 가는 형태를 말한다. 넷째, 단락을 바꾸는 형태: 본문의 전개 과정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형태를 말한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나 중간 부분을 먼저 다루고 앞부분을 다루는 형태를 말한다.

④ 이야기 설교의 작성 과정 : 첫째, 본문을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 둘째, 무대 또는 막의 틀을 찾아낸다. 그리고 각 막의 키 워드를 찾아낸다. 셋째, 본문을 연구한다. 역사적 배경을 연구한다. 그러면 설교의 사실성과 신뢰성과 생긴다. 먼저 때와 장소, 기후, 습관, 고고학적 자료, 정치 사회적 구조, 자연 환경 등을 연구한다. 그리고 핵심주제를 찾는다.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연구하다 보면 핵심주제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또한, 등장인물들을 연구한다. 등장인물의 머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의 태도와 기질과 도덕성과 내면의 동기들을 찾아낸다. 이와 함께, 이야기의 플롯을 찾아낸다. 넷째, 어떤 종류(1인칭, 3인칭)와 형태로 이야기 설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설교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바리새인들은 규제로 진리를 삶과 분리했지만,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해 진리를 느끼게 하셨다. 성경은 역사의 사건들이 시간 후 기록된 것이며, 이야기 설교자는 고고학자처럼

럼 성경 기록과 실제 사건을 오가며 숨은 의미를 찾아야 한다. 본문 해석은 내용 파악, 의미 발견, 하나님의 의도 파악의 세 차원을 거친다. 이야기 설교는 가슴으로 듣고 말해야 하며, 설교자가 본문에 깊이 몰입할 때 청중도 은혜를 받는다.

6. 사용하고 있는 자원 : 어떤 자원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 1) 인적 자원 : 외부 강사 없이 제자훈련을 받은 유능한 목회자들을 티칭 스텝으로 활용한다.
- 2) 물적 자원 : 경제원칙은 자급자족이다. 회비로 훈련원 운영비와 강의료를 충당하며, 숙소 겸 훈련원 건물의 렌트비는 자체 부담한다.
- 3) 시간 자원 : 매일 큐티와 전도 훈련, 성경공부 준비로 바쁜 일정 속에서 주말엔 훈련과 전도 사역을 집중하며, 대부분 강의는 티칭 스텝들이 맡는다.
- 4) 외부 동원 자원 : 여름과 겨울 수련회 때 외부 강사를 초청하며, 경제 사정 악화로 스폰서 강사를 찾기도 한다.

7. 더 필요한 자원 : 어떤 자원들이 더 필요한가? 이것들을 어떻게 보충할 계획인가?

- 1) 인적 자원 : 인적 자원은 내부공급을 원칙으로 하여, 능력 있는 목회자를 발굴해 제자훈련 후 티칭 스텝으로 세운다. 그러나 남성 스텝이 부족하고, 배신 사례도 적지 않다.
- 2) 물적 자원 : 은퇴 전 작은 훈련원을 마련하고, 같은 비전을 가진 동역 선교사를 얻기를 기대한다. 또한 성경 연구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고, 사역을 홍보해 수익을 늘릴 계획이다.
- 3) 시간 자원 : 새 성경공부도 필요하지만 기존 자료를 활용해 강의 준비 시간을 줄여야 한다. 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티칭 스텝이 토론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4) 외부 동원 자원 : 현지 교회나 한인교회 수양관, 다른 선교사들의 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8. 장애 요소들

- 1) 사역 중에 어떤 종류의 장애들을 만났는가? 각각의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 (1) 배신 : 제자훈련을 통해 세운 티칭 스텝들 중 일부가 배신하고 떠났으며, 안식년 중 훈련원 총무였던 목사가 훈련 받은 교회들 30-40개를 모아 독자적으로 작은

교단을 세웠다.

- (2) 경제적 어려움 : 초기에는 목회자제자훈련을 무료로 했지만, 선교비 감소와 자립 정신 함양을 위해 회비를 받기 시작했다.
- 2) 장애 요소들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 (1) 사역자 측면 : 업무를 지나치게 위임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주 티칭 스텝들과 줌 미팅을 하여 삶을 나누고 사역을 논의한다.
- (2) 자원 측면 : 아르헨티나 경제가 어려워져 외부의 도움 없이는 수련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 (3) 사역 환경 측면 : 시간이 지나갈수록 훈련생들 숫자가 감소하고 자원자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 (4) 사역 대상 측면 : 커뮤니케이션의 부족과 인격적 미성숙함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적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 3) 현재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가?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가?
- (1) 사역이 다양해지면서 목회자 제자훈련과 목회자 개별 상담, 교회 방문 멘토링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 (2) 지방과 주변 국가들의 훈련 요청이 있지만, 선교비 부족으로 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때 우루과이에서 매달 훈련했으나 재정 문제로 중단했다.

9. 사역 결과들 : 사역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 1) 어떤 사역적인 열매들을 얻게 되었는가?
- (1) 귀납법적 성경연구 습관 만들기
해석학적 큐티 세미나는 준비 중이며, 매일 아침 발표자의 큐티를 보내고 있다. 훈련이 없는 12월부터 2월 사이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3월부터 12월까지 60여 명의 목회자에게 모세오경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
- (2) 성경중심 설교를 목사 만들기
훈련받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달라졌다는 반응을 자주 듣는다. 한 목회자는 “이제 내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안다”고 고백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
- (3) 영적싸움을 싸우는 전투력 있는 목사 만들기
목회자들의 전도훈련은 평신도보다 어렵고, 실제 전도나 “3분 복음” 실천도 잘 하지 않는다. 전도는 하지만 소그룹 재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목

회자들이 전도에 나서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여겨진다.

(4) 성숙한 목사 만들기

라이프 포메이션과 소그룹을 통해 인격 성숙을 훈련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다. 재정 사고는 없으나, 성적 타락 사례가 있어 징계와 회복 과정을 철저히 진행하며, 실제 두 목사의 징계와 회복에도 참여한 바 있다.

2) 사역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여기는가?

본인은 자신의 사역이 아르헨티나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느끼지만, 건강한 교회와 목회자 양성은 분명 주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는 말씀 훈련과 전도훈련을 교회 전체로 확장하고, 사역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시점이라 판단한다. 한 티칭 스텝은 “이 훈련을 통해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봤기에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고백했다.

3) 동료 사역자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다고 여기는가?

본인은 목회자제자훈련을 통해 동료 선교사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목회자 연장교육이 선교사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4) 사역이 본인의 영적인 성장과 사역 역량 계발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본인은 “가르치면서 배우다”는 원칙에 깊이 공감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깊이 배우고 성장했다. 전공은 아니지만 성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얻게 되었고, 훈련받는 목회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10. 사역 전략에 대한 평가

1) 목표들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본인은 명확한 목표보다는 막연한 그림 속에서 사역해 왔고, 은퇴를 앞두고 자괴감과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 목회자들이 실제로 훈련 내용을 적용하는지 의문을 가지며, 너무 어렵게 가르쳤다는 반성 속에 적용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을 고민 중이다. 이로 인해 티칭 스텝들의 불만도 있었다.

2) 사용한 전략이 목표를 이루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1) 어떤 면에서 효과적이었는가?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의 체감적 필요와 신학 교육의 공백을 파악해 전략을 세운 점이 효과적이었다. 이론보다 실습 중심의 훈련, 그리고 인격과 공동체를 함께 다룬 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사역했지만, 은퇴 전 작은 훈련 센터 같은 하드웨어 마련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탁월한 훈련생들을 인적 자원으로 활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목표 달성을 가능케 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① 환경적 차원 :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었는가? 현지 교회와 현지 사역자들의 필요를 잘 파악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사역자 차원 : 사역자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며 집중하였는가? 오랫동안 한 우물을 깊이 판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③ 신적인 차원 :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태웅 목사의 격려와 도전으로 귀납법적 성경공부를 지속하게 되었고, 대학 시절 CCC에서의 전도와 제자훈련 경험이 현재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다.

3) 사용한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효과적인 것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면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

(1)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지만 현지 교회와 현지 목회자의 필요를 잘 파악한 것이다.

(2) 어떤 부분이 더 개선되어야 하는가? 현지 교회와 목회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더 쉽고 전수 가능한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전략상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하이브리드 교육을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조화가 필요하며, 인지주의뿐 아니라 경험주의와 행동주의 방식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4)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본부나 지부에 건의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
모든 일을 선교사 개인이 감당할 수 없기에, 전략적 사역 개발과 모범 사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5)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각 나라의 필요는 다르므로, 가장 절실한 필요를 찾고 현지 교회가 원하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선택해야 한다. 사역은 반드시 현지 지도자들과 상의하고 함께 진행해야 하며,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의 신학교 사역 현장 사례연구

— 중화침례신학원을 중심으로

| 양문 선교사 (FMB / 중화지부)



선교사역의 형태 가운데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역이 바로 신학교 사역이다. 목회자, 사역자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정의 교육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교지의 신학교는 성경학교, 제자훈련반, 교리학습반, 단기반 등의 다양한 형태와 포맷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학교 사역이 선교지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의 근간이 되는 것임에 누구나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단순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신학교는 단순히 신학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현지 교회 지도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 핵심 기관이 되기 때문에 설립과 운영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¹⁾ 신학교 사역자는 학자, 행정가, 교육자의 역량을 갖추어 함에도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가 드물다. 단순히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준비와 조건이 겹쳐지는 것이 신학교 사역의 기초가 된다. 본 연구자는 중화침례신학원(이하 중침신)의 사례 연구를 통해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의 신학교 사역의 기본적인 내용과 핵심 가치를 제시하여 각 선교지에 상황화되고 특화된 신학교 사역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신학교 사역자는 다음의 세가지의 정체성과 역량을 가지고 신학교 사역을 해야 한다. 첫째로 학문적 역량(학자)을 가지기 위해 성경과 신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1) 신학교는 이사회, 커리큘럼, 교수진, 학생, 도서관이라는 5개의 구성 요건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만, 그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이 요소들은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이다. 선교지라고 해서 기본적인 요건이 부족하면 신학교의 사역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학생들이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신앙적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신학적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학문적 깊이와 연구 능력이 요구된다.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학문의 전문성으로 갖추기 위해서 전공 과목의 박사학위 소유도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로 행정적 역량(행정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신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 운영, 재정 관리, 교육 과정 설계, 학생 모집 및 관리 등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선교지에서는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역량(교육자)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교육 방식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교수법을 적용해야 하는 능력이다. 신학적 지식을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방법으로 사고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신학적 기초 위에 교육의 기본 구조를 쌓아 올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지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보다 쉽게 성경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1999년 중국으로 파송 받아 26년동안 두 개의 신학교에서 사역하였다. 첫 번째 신학교(A신학교)는 설립된 지 20년 지난 시점에 현지인에게 이양을 완료했으며, 두 번째 신학교(중화침례신학원)는 온라인 신학교로 현재 운영 중이다. 2019년 중국에서 비자발적 귀국한 침례교 선교사들과 침례교 목회자들과 함께 신학교를 설립에 대한 구상과 비전을 나누었고, 구체적인 설립 계획을 세워 대만에 설립하였다. 중침신은 기존의 전통모드가 아닌 온라인 신학교육이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설립하였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신학교육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교육의 유연성과 접근성이 용이하여 더욱 보편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선교의 가장 기초적인 사역은 복음 전도, 제자 양육, 교회 개척 및 목양이다. 이러한 사역들을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된 목회자와 사역자를 배출하는 곳이 바로 신학교이기 때문에, 신학교 사역은 선교 사역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학교는 성경과 기독교 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신학적 혼란이나 이단을 방지하며, 건강한 교리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신학교는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성경적 신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아직 교회나 교단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지역이나 국가에 파송된다. 이런 상황에서 신학교 사

역은 현지인을 제자로 양성하고, 그들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형성하도록 도우며, 나아가 현지 교회 및 교단 설립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한다.

아래의 도표는 중침신(Chin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의 사역 프로필이다.

사역지역	1. 선교대상 : 중국(본토), 디아스포라 중국인 2. 신학교위치 : 대만 New Taipei city	
대 상 및 의 미	1. 중화침례신학교(Chin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은 중국 도시가정교회 개척 및 목양할 수 있는 목회자, 선교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신학교다. 2. 가정교회 교단, 현지 교회, 현지 신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위탁 받아 신학교육 훈련한다. 3. 파송된 사역자들은 중국 내 침례교회와 침례교단의 설립을 목적으로 배양되고 양성된다. 4. 수여 학위: 아세아신학협회(ATA) 인증 신학교	
사 역 비 전 방 향	교육목적	침례교 신앙과 정신을 가진 중국 가정 교회 목회자 및 선교사 양성, 배양하고 이를 통해 중국(대륙)내 침례교 교단 혹은 연합회를 구성한다. 침례교 신학과 신앙,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과 영성 훈련, 공동체 훈련 등을 교육한다.
	교육내용	1. 대학원 과정의 교육 : 신학학사 / 기독교연구석사 / 목회학석사 / 목회상담학석사 / 기독교교육석사 / 선교학석사(한국어) 2. 연장교육 : 비학위과정 (신학, 상담학, 기독교교육) 3. 양질의 교육 자원과 Ph.D학위의 다수의 교수(30여명) 4. 교육방식 : Hybrid 온라인 강의와 집중강의 5.교수진: 전임8명, 객원22명, 한국인1/5, 중국인 4/5
	현 상황	현재 140여명의 신학생들이 중국 각지의 13개 주요 도시,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신학 강의를 병행하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의 주요 목표는 신학 교육을 통한 사역 인재의 양성에 있다. 이는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영적 지도자, 선교사, 사역자, 기독교 교육자를 배출하기 위한 사역적 기반이며, 이를 위하여 신학교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신학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신학생

들에게는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영적 성숙과 리더십 역량 함양을 위한 멘토링 및 영성 훈련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로써 다양한 사역 현장에서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전인적이고 다재다능한 사역자로의 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학교는 정규적이며 체계적인 신학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학생들이 일관된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교한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커리큘럼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핵심 신학 과목 : 성경신학(구약, 신약),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등
- 일반 교양 과목 :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인문학 및 교양 수업
- 실천 신학 교육 : 이론에 기반한 실제 적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역 실습 및 훈련

이러한 교육을 통해 신학교는 단순한 학문 기관을 넘어, 현장 중심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선교적 교육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곧 교회와 선교지에 있어 건강한 지도자 세대의 지속적인 공급과 복음 사역의 확장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된다. 신학교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전문성과 자격을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 체계를 통해 학업 성취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보충학습 및 개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소정의 정규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위 및 졸업장을 수여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성과 자격을 국내외적으로 인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신학교 졸업생들이 선교지, 지역 교회, 또는 글로벌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중침신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ATA(Asia Theological Association)로부터 정식 인증을 받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침신은 총 6개 학과의 학위 과정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각자의 소명과 사역 영역에 맞는 전문화된 신학적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고 있다. 이처럼 정기적인 학업 평가, 국제 인증, 학위 수여 체계는 신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신학생들의 사역 현장 진출과 글로벌 연계성 확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의 선교 상황은 정부의 종교 정책과 교회 현실의 이중적 긴장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자국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교를 정부 통제 하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정부의 공인을 받은 삼자교회는 일정한 제도적 기반 위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교회 지도자 양성 시스템도 존재한다. 그러나 삼자교회 산하 신학교들의 졸업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중국 교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며, 일부 졸업자들은 복음주의적 신학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문제점도 있다. 반면, 중국의 가정교회는 복음적 신앙을 가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정규 신학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신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소수의 사역자들은 화교나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설립된 신학교에 입학하거나, 홍콩 인접 지역에서 비밀리에 운영되는 신학교들을 통해 신학 교육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화교 출신 목회자나 해외 교회의 지도자들이 단기적으로 중국에 입국하여 강의하는 형태의 원거리 신학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는 지속성과 체계성 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교는 당시 중국 내에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중화침례신학원의 신학교육 전략은 중국 교회가 직면한 신학교육의 공백을 보완하고, 복음주의적 정체성과 학문적 깊이를 갖춘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안적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목회 현장을 떠나지 않고 현장에서 신학교육을 실천하는 방식은 중국은 물론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로 평가된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대시설만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규적이고 공인된 커리큘럼과 국제 인증 학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신학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중침신이 중국 교회와 중국 선교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내 침례교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침례교 네트워크의 형성은 중국 내 교회들이 협력하고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중국 내 침례교단이 형성될 무대가 마련되고 있다. 현재 30여개의 교회의 목회자와 중침신의 졸업생들이 침례교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교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 큰 영적 성장을 이루고, 중국 내 침례교 교단이 공고히 설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침신이 온라인신학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다른 중국 신학교들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A신학교는 중국 최초로 ATA에 가입한 신학교로, 타 신학교에서 ATA 가입과 그 조건에 대한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A신학교의 사례는

신학교 운영과 국제 신학 기관과의 연계에서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전자도서관 설치, Learning Management 운영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도 A신학교와 CBTS가 선구적으로 추진한 부분이다. 이는 다른 신학교들에게도 배우고 있으며, 중국 내 신학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ATA 가입을 통해 국제 신학 네트워크와의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중국 신학교들이 이러한 국제적인 기준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A신학교와 CBTS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라는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신학교 운영과 신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신학교를 설립, 운영하였고, 그 후 결과와 성과로 판단했을 때 매우 효과적이었다. 중국 가정교회 상황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 목회자 양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사역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하였고, 이를 통해 가정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 해졌다. 또한 선교사가 직접 현지 교회를 개척할 수 없는 환경 아래에서 현지 사역자를 양성하여 그들을 통해 교회를 개척하고 확장하는



것이 적중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학교육이라는 방식을 통해 온라인 교육 운영과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여 온라인 교육에 맞게 조정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해 실시간 강의, 질의응답, 그룹토론, 상담 등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학습을 하고 있다. 온라인 신학교육은 유연성, 접근성, 비용절감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물리적 제약과 제한된 환경에서 개발된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다. 커리큘럼 또한 중국 가정교회에 상황화되고 특화된 석사과정과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다. 특히 중국사회의 가정문제와 교회내 깨어진 가정들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회상담학석사과정의 개설로 중국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사역자가 실제적인 상담 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깨어진 가정에 대한 심리적 영적 치유는 물론 성경적 상담학을 통해 교회와 사회의 가정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교육학 과정을 신설하여, 보다 성경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함께 하나 됨의 발견

2024년 중앙아시아 3개 지부 연합모임을 마치고



| 하자크 (FMB)

지난 2024년 7월 알마티에서 중앙아시아의 ‘스탄(페르시아어로 “땅”이라는 접미사)’이라는 이름을 공유하는 국가의 선생님들이 20년 만에 공식 연합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선교의 첫 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우러져 중앙아시아 선교 상황의 현주소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급변하는 사역 환경 속에서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함께해야 한다는 절대적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각 개인의 마음속 질문을 나누는 가운데 확인된 동료애와 기쁨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귀한 선물이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는 ‘스탄’이라는 이름은 20세기 냉전 시대 철의 장막이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무너지면서 탄생한 국가들로, 구소련 붕괴의 역사를 공유한다. 비단길과 주요 무역로를 통해 유럽, 중동, 인도, 동아시아의 혼합 문화를 나누며 비슷한 민족적 배경과 정체성을 지닌 이들 ‘스탄’ 국가들은 구소련에서 독립하였다는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며, 무엇보다도 현대 선교의 아주 중요한 과제인 무슬림들이 사는 땅으로 이슬람 학문과 문화, 예술의 부흥을 경험했던 이슬람의 깊은 영향력 아래 있는 땅이다.

철의 장막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부터 시작된 중앙아 사역은, 여러 민족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 사역자를 양성하며 꾸준한 열매를 맺어온 지 30년이 넘어섰다. FMB 선생님들은 다양한 형태로 연합하여 여러 민족 속에 교회를 세우고, 현지 총회의 설립을 지원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열매로 경험하는 귀한 선물을 받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자들이 추방되고, 전반적으로 이슬람의 폭발적인 부흥과 이슬람 중심의 종교의 강화 등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사역자들의 연합은 점차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 재난, 사회 변화, 주변국의 전쟁과 같은 국제 정세의 변화, 이슬람의 비약적 발전, 그리고 새로운 사역

자들의 부재 등, 선교 환경은 모든 영역에서 큰 도전 앞에 서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에는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무슬림 배경의 민족은 대부분이 여전히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다. 이미 세워진 교회들도 앞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쉽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단들의 적극적인 포교는 기존 교회를 흔드는 등 사역을 방해하는 위협들이 점점 강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과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지속 가능한 선교와 발전적 걸음을 모색하는 것이 ‘스탄’을 공유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앙아시아 3개 지부가 마음을 모아 연합모임을 가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모임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함께 함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중앙아시아 선생님들이 20년 동안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지 못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 복잡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대신 말해주는 듯하다. 우즈베키스탄의 대부분 선생님이 새롭게 지역을 이동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게 되었고, 사역 초기의 어려운 환경에서 서로 돕고 기도하며 함께 했던 끈끈한 연대감은 세대를 지나면서 열어진 상태이다. ‘함께 함을 발견’하는 것은, 선교사역에서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사역에서, 또한 현지인 총회와 함께 여러 모습으로 동역하고 있는 우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목표였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첫날 프로그램은 참석한 서로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오프닝에서 참석자를 영상을 통해 한 가정씩 소개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가 모임의 주인공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랐다. 개회 예배 이후의 첫 프로그램을 레크리에이션으로 진행하여 긴장을 내려놓고 쉬어서 활동하고 함께 웃으면서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저녁 시간은 조금 과감하게 모임을 장기자랑으로 진행했다. 선생님들이 가진 뛰어난 장기에 놀라고 우리로 묶여 있는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자기를 가졌는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 감동하는 시간이었다. 예배 없이 장기자랑으로 이렇게 은혜가 되



는 경험은 처음이었다는 고백이 있었다.

모임의 오전 시간은 우리의 사역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첫날은 오요셉 선생님이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중앙아시아 선교 역사를 정리해 주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선교사역의 방향성을 발제해 주었다. 이 발제를 근거로 세대별 소그룹 모임을 하였고, 소그룹 모임에서 중앙아시아 사역 속에서 진행되고 사역적 이슈들과 그 안에서 자신들의 사역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대별로 진행된 나눔을 모아 함께 모여 발표함으로써, 사역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고민과 질문, 그리고 세대별로 조금씩 다른 생각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날 오전은 각 지부장님이 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원들의 사역을 나누어 주었다. 다양한 접근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각 나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떤 장애요인과 그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첫날과 동일하게 세대별 소그룹 모임을 통해 사역자들의 깊은 고민과 창의적인 접근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역의 발전을 위한 서로로부터의 배움과 협력 방안을 숙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 날은 연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신학교 사역과 가정교회 사역, 그리고 중앙아시아 무슬림 배경의 소수민족 연합 사역인 CAM사역에 대한 나눔이 있었다. 연합 사역들을 통해 중앙아시아 사역자들이 어떻게 동역하며 열매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료 사역자 중에 창의적으로 BAM사역을 교회사역에 접목하고 있는 사례와 사역 철학을 들으며 우리의 사역 시각을 넓히고 현지 사역자와 교회들이 어떻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모임 기간 오후 시간은 본부와의 대화, 현지인 총회의 대화, 그리고 함께 운동하고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특별히 본부에서 회장님과 당시 이사장님, 그리고 현 이사장님이 참석하시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본부 사역과 FMB의 정책들에 관해서 묻고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FMB 중앙아시아 현지총회는 선생님들에 대한 애정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풍성한 점심을 제공해 주었고, 선생님들의 사역의 결과로 현지총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복음의 재생산의 현장 소식을 나누어 주었다. 특별히 여의도 교회에서 미용과 MK들을 위한 캠프를 섬겨주었다. 여의도교회의 겸손하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섬김이 연합모임을 추진하고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동인이었다.

둘째 날과 셋째 날 저녁 시간은 예배와 말씀, 그리고 함께 기도로 헌신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강사로 섬겨 주신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과 부산교회

김중성 목사님이다. 식사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을 만나주시고 사역과 일상을 들어 주시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또한 선생님들이 충분히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셨다. 두 분 강사 목사님의 선교사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중앙아시아의 3개 지부는 3년에 1회 각 지부를 돌아가면서 정기 연합모임을 가지기로 마음을 모았다. 그리고 연합모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각 지부에서는 회원들이 매월 1만 원씩 적립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연합모임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음은 참석했던 선생님들의 간단한 소감들이다.

“중앙아시아 사역의 환경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가 나누고 협력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00)

“2·3·4세대 선생님들 역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며 자긍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장00)

“현지 사역자의 섬김과 인사를 통해 30년간 이어진 윗분의 역사를 느끼며 큰 감동을 받았다.” (김00)

“20년 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가족 같은 연합을 느꼈습니다.” (정00)

“세대별 모임을 통해 공감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김00)

“영혼과 지역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긴 다양한 이야기가 생각과 마음을 확장해 주었다.” (홍00)

“새롭게 들어온 새로운세대가 연합을 느끼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조00)

“이 땅에서 주님의 큰 그림에 한 조각이 되고 싶은 소망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이00)

“비슷한 연령대끼리 모여 고민을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현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과 저항으로 쉽지 않은 미래를 예고한다. 자원은 줄어들고, 이슈들은 늘어나고, 사역의 초점은 점점 넓어져서 방향은 혼미해지고 있다. 한 부르심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함께 하고 연합함은 유익한 선택이 아닌 선교의 존망을 가르는 순종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안에 있는 서로를 발견하고, 배우고, 모아서 함께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 땅으로 부르신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뜻이라는 것을 이 연합모임을 통해 배우게 된다.

제3차 IMB 미션서밋 현장에서 마주한 협력의 은혜



| 문승호 선교사 (FMB / 국제총무)

지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북가주에 위치한 뉴비전교회(이진수 목사)에서는 제3차 IMB 미션서밋이 열렸습니다. 이번 서밋은 남침례교 국제선교부(IMB), 미주한인총회, 그리고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FMB)가 한 자리에 모여 아시아 태평양지역(APAC)에서 협력 선교의 미래를 함께 나누었다.

IMB는 18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전 세계 100여 개국에 3,8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어왔고, FMB 역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지난 30년 이상 아시아 태평양(APAC) 지역에서 한국적 특성과 은사에 따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왔다. 이번 서밋은 그 오랜 동역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선교 협력의 문을 여는 자리였다.

현장의 선교 협력을 위한 만남

FMB 대표단은 김종성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이사님들, 주민호 회장님 및 국제총무가 함께 참여했다. 회의는 단순한 형식적 만남이 아니라, 깊은 고민과 실제적인 전략이 오가는 실천적 대화의 장이었다.

특히 Dr. Paul Chitwood(IMB 총재), Greg Mann(IMB APAC 대표), Dr. Jeff Iorg(SBC 총

재) 등 IMB와 남침례교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IMB의 정책과 선교 전략을 한국과 미주 한인교회 지도자들과 공유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진정성 있는 협력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남침례교 총재인 Jeff Iorg 박사는 남침례교 교회들의 협력선교(Cooperative Program)의 중요성과 그 동안의 열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한국 교회의 현재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선교 헌금이 협력선교의 원칙 아래 모금 및 집행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다. 특히 그는 남침례교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선교에 참여하는 이유를, 침례교회가 자치적(autonomous)이지만 독립적(independent)이지 않은 특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침례교회의 협력선교(CP)를 위해 교훈을 주는 메세지였다. 먼저 지역교회의 협력과 하나됨은 지상대명령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에 선교 현장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서밋의 주요 논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이었다. 이를 위해 주민호 회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FMB의 해외 선교현장과 그동안 IMB와 협력해 주요사역 및 결과를 소개하며 협력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다. 그중에 문승호 국제총무는 FMB의 필리핀 민다나오 무슬림 사역을, 김종식 이사는 북인도 무슬림 사역과 인도 침례신학교 사역을 나누며 태평양 아시아의 창의적 접근 지역들에서 FMB 선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실제적인 도전과 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열매를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IMB와 FMB 현장 선교사들의 교류의 필요성과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과 마주한





하고 IMB의 리더십과 그 방법들을 모색했다. 3) IMB-FMB 간 선교 전략 및 정보의 공유를 체계화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각 단체별 서밋 참가자들의 구성이 상호 매칭이 안되어 구체적인 토론은 어려웠으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가 있었다. 4) 이번 서밋에서 늘사랑교회(송호철 목사)의 미전도종족을 위한 사역 소개는 미주한인교회의 미전도종족 사역으로 나가는 촉매 역할이 되었다. 5) IMB와 FMB 선교사 간 현장 교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현장 리더들의 요청이 있었고 연합 사역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합의가 있었다. 이러한 제안들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함께하는 선교"로 한 걸음 더 나

인교회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IMB의 지부장 및 주요 팀 리더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현장의 필요를 소개하며 FMB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필리핀과 일본 등 몇몇 지부장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FMB의 현장 선교사들과 직접적인 교류와 만남을 요청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합의와 제안들

서밋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선교적 제안을 나누고, 서로 긍정적으로 공감하며 실행을 위한 문을 열었다. 1) 미주한인교회는 함께하는 단기 및 장기 선교 파트너십의 확대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2) 뿐만아니라 IMB 내 한인 선교사의 리더십 발굴과 강화를 통해서 미주한인교회와 IMB의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를 표현

아가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다.

지역 교회의 헌신, 선교의 모델이 되다

이번 서밋에서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었던 것은, 대전 늘사랑교회(송호철 목사)와 미션포인트교회(고석진 목사)의 지역교회 선교사례 발표였다. 늘사랑교회는 6개 미전도종족을 입양하여, 훈련된 선교사를 선발해 직접 파송하고, 현지 교회 개척까지 이끌어낸 실제적 선교모델을 나누었다. 이 사례는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주도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었다. 선교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감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시, 함께

회의 마지막 날, IMB 총재 Chitwood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한인교회를 통해 이 시대 선교의 중요한 열쇠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실제적인 책임이 담긴 메시지였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글로벌 선교의 공동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단지 미주 한인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닌 한국 침례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세지이다. 한국 침례교회는 남침례교의 협력선교의 모델을 본받아 지속적인 선교를 위해 협력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 선교의 관점에서 이번 미션서밋이 아쉬웠던 점은 참가자들의 불균형이었다. 상호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일일 수도 있으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서밋에서 단체별로 상호 대화할 수 있는 카운트 파트너들이 참석할 필요성이 있다. IMB의 경우 총재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권역장과 대부분의 지부장들과 주요 팀 리더들이 참석했다. 이에 대응하여 FMB 역시 지부장들이 참석했다면 더 구체적인 논의의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한편으로 미주한인총회의 선교적 교회의 주요 목회자들과 한국 침례교회에서 선교에 열심인 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한 것은 상호 협력과 논의를 위해 고무적이었다.

이번 미션서밋은 회의장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다시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한국침례교회와 FMB는 이 협력의 정신을 이어 받아, IMB와 미주한인총회와 함께 전세계의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전략적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돌아온 인턴선교사들과 함께 한 Re-Entry를 소개합니다.

| 김석기 선교사 (FMB / 동원총무)

1년 정도의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선교지에서 보낸 경험이 Re-Entry 프로그램을 필요로 할까? 하지만, 밝은 대낮, 밖에서 갑자기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눈이 적응하는 잠깐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다른 문화 속에서 새로운 생활 패턴과 경험을 했던 인턴 선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응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역보고와 연이은 만남 속에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놓치거나, 그곳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마음에 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Re-Entry 프로그램은 그런 인턴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으로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선교지에서의 경험을 충분히 의미 있게 평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FMB는 2022년 3월 첫 인턴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 2024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제주 여의도침례교회 더워드센터에서 4명의 인턴과 함께 1차 Re-Entry를 진행했고, 2025년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보령 파인트리 펜션에서 2명의 인턴과 함께 2차 Re-Entry를 가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 선교사들은 같은 길을 걸어온 동료들과 경험을 나누고 위로 받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내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장기선교사로서의 헌신을 결단하거나 선교적 삶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섯 명의 인턴 선교사들이 Re-Entry 프로그램 후, 모임의 축복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1. 내면의 정리와 결단의 시간 : 참석자들은 선교 후 내면의 상태를 돌아보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설정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를 통해 사역의 목적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선교 비전을 다시 세우는 결단이 이루어졌습니다.
2. 공감과 동역의 만남 : 선교 현장에서 겪은 경험들을 다른 인턴들과 나누며 공감과 배움을 얻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3. 쉼과 회복의 시간 : 바쁜 한국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쉼과 개인 리트릿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내면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선교의 여정과 은혜를 회상하며 감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 선교적 삶에 대한 도전 : 강의와 경험 나눔을 통해 미전도 종족과 선교적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5. 지원과 격려 : 프로그램을 통해 FMB와 선배 선교사들의 후원과 격려를 느끼며 선교단체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앞으로의 준비와 방향에 대한 조언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4년 FMB 은퇴선교사

| FMB 해외지원팀

제4회 FMB 은퇴선교사 감사예배가 지난 2024년 11월 26일에 포항중앙교회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한, 자랑스러운 FMB 선교사들을 소개(파송 순)한다.



■ 이광수, 전귀순 (필리핀 / 1989년 11월 2일 파송)

“선하신 목자, 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989년부터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교회 개척, 미자립교회 자립을 위한 훈련 사역, 쉬운성경 제자양육 학습서 발간, 신학교 강의 사역 등을 통해 필리핀 선교에 헌신하고 있다.

■ 이상구, 유승희 (프랑스 / 1990년 1월 1일 파송)

“건강하게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985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파리침례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 중이며, 1988년부터 30년간 KOSTA 선교상임대표를 역임하였다. 1989년에 FMB 선교사로 허입되었고, 파리 수양관 사역 및 한국 음식 문화 사역을 통해 아프리카, 중동, 유럽의 많은 선교사들을 섬기고 있다.

■ 최낙환, 김인숙 (필리핀 / 1994년 7월 1일 파송)

“구원해 주시고 선교사로 부르셔서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94년부터 필리핀에서 교회 개척, 무슬림 사역, 제자훈련 및 선교훈련 사역, 공동체 신학교 사역 등을 통해 필리핀 선교에 헌신하였다. 현재는 다바오 침례신학교(Davao Baptist Seminary President) 학장으로 재임 중이다.

■ 권혁열, 임선희 (일본 / 2000년 2월 22일 파송)

“선교지에서 많은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 회복과 성장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부터 6년간 일본 동경한일교회에서 사역하였고, 2006년 4월에 동경사랑의교회를 개척하여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일본인 홀리스를 위한 도시락 봉사과 전도 활동,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등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 장상운, 이명순 (필리핀 / 2001년 12월 13일 파송)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91년부터 필리핀에서 사역하였고, 2001년에 FMB 선교사로 허입되었다. 현지 목회자 연장교육을 위한 사역자학교(전 목회자 훈련원) 운영, 다바오 아름다운교회 담임 목회, 코피노를 위한 한글 교육, 다문화가정의 아내들을 위한 사역 등을 통해 필리핀 선교에 헌신하였다.

■ 황유생, 소민숙 (대만 / 2005년 11월 20일 파송)

“은퇴 후에도 선교지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92년부터 중국에서 제자 양육, 교회 개척 사역을 하였고, 2005년에 FMB 선교사로 허입되었다. 2016년에 비자발적으로 나와 2017년부터 대만에서 여러 미자립 대만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현재는 대만 여주동행교회 담임목사로 시무 중이다.

■ 조금숙 (미얀마 / 2008년 12월 23일 파송)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01년부터 중국에서 캠퍼스 사역을 통한 제자 양육 및 가정 교회 개척 사역을 하였다. 2008년 FMB 선교사로 허입된 이후, 미얀마에서 현재까지 버마 종족 신앙공동체 사역, 교회 개척, 한글수업 사역, TEE신학교 강의 사역, 지역사회 개발 사역 등을 통해 미얀마 선교에 헌신하고 있다.

■ 전상만, 나행균 (몽골 / 2012년 12월 10일 파송)

“선교사로서의 삶과 사역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4년부터 몽골에서 사역하였고, 2012년에 FMB 선교사로 허입되었다. 20년 동안 몽골 고아원 운영 및 자매결연아동 지원 사역, 현지 지도자 양육 및 현지 목회자 말씀 훈련 사역, 교회 개척, 몽골침례신학교 운영 및 교수 사역 등을 통해 몽골 선교에 헌신하였다.

■ 박OO, 정OO (X국 / 1995년 8월 1일 파송)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5기 장단기 선교사 훈련생 소개 및 기도제목

‘25년 3월 4일부터 5월 22일까지
35기 장단기선교사훈련이 있었습니다.

훈련생은 이집트, 일본, 라오스,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등으로
파송될 예정입니다.’

● 김하진



- 파송국가 : 북인도 K지역
- 파송교회 : 새생명교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
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
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
으리라”(마 28:19~20)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다시 북인도 K민족
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전 보다 더 하나님
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훈과육도 강건하도록
2. 언어 공부에 지혜를 주셔서 빠른 언어습득이 되
도록
3. 안정적인 비자를 받게 하시고 출입국이 순적하
도록
4. 기도, 사역, 재정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도록

● 김태진 / 김두리



- 파송국가 : 라오스
- 파송교회 : 빛의자녀교회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
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
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
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사 58:12)

라오스에서 단기선교사로 사역하는 중에
받았던 말씀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 섬기던 공동체가
스스로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것
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그
들과 함께 웃고 울며 라오스 그 땅에 주님
의 빛을 전하고 오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하나님이 라오스를 사랑하시는 것같이 저희 부
부가 라오스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2. 주님이 주신 지혜와 담대함으로 그 공동체가 스
스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
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3. 라오스어와 그 문화를 배울 때, 주님의 지혜로
공부하고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 데이빗 / 사라



- 파송국가 : A국
- 파송교회 : 디딤돌교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
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요일3:17)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삶을
살다 A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
하여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A국에 하
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
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갑니다.

■ 기도제목

1. A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저희 가운
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2.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
길 원합니다
3.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역되길 원
합니다

● 박충만 / 조하영(이준, 예나, 이안, 예서)



- 파송국가 : 미정
- 파송교회 : 새소망교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4~15)

2019년 결혼을 하며 선교사 파송을 받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선교의 첫 마음을 가지고 4명의 자녀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선교의 마음을 품고 훈련받는 과정이 너무 귀하고 기쁩니다. 아직 나라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곳에서의 훈련을 잊지않고 삶으로 나타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어느 나라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2. 4명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잘 적응하며 아프지 않도록
3.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고, 성령충만하여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 엄규식 / 윤아름(다빈, 하빈)



- 파송국가 : 러시아(바쉬키르 공화국)
- 파송교회 : 새생명교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13)

러시아에서 ‘친구’가 되는 것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신뢰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내 무슬림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신의 친구들,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제자들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고, 저희 가정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바쉬키르 민족과 진정한 친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2. 러시아 내 무슬림, 바쉬키르 민족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3. 어린 자녀들이 러시아와 바쉬키르 민족을 사랑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 이가람 / 이희주(시온, 예은, 준은)



- 파송국가 : 이스라엘
- 파송교회 : 미정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당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사 40:1-2)

2002년 겨울 처음 밟았던 이스라엘의 키부츠 바르암에서 “이 백성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23년이 지나 드디어 그 백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윗의 13년, 모세의 40년 같이 긴 세월이었지만 한번도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갑니다.

■ 기도제목

1.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셔서 복음의 열정으로 선교하도록
2.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3. 재정적인 부분보다 영적인 부분을 깊게 나눌 수 있는 파송교회와 연결되도록

● 이성민 / 윤은정



- 파송국가 : 인도
- 파송교회 : 새누리2교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5))

저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선교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함께 서로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한 팀으로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려 합니다. 이 모든 발걸음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살아나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1. 영성, 인성, 지성이 균형잡힌 건강한 선교사로 준비될 수 있도록
2. 현지 문화와 언어습득이 깊이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3.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땅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 이은숙



- 파송국가 : 미정
- 파송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고등학교 때 선교사 소명을 받고 이제야 너무 늦은 나이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순종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맨발로 나가보려 합니다.

■ 기도제목

1. 선교사 사명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 합니다.
2.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붙여 주세요.
3. 한 영혼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 이찬양/전나은(서희, 서연, 도진)



중학교 1학년 때의 부르심과 대학생 때 부어주신 아랍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다시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가족이 회복의 땅으로 나아가 이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 보이는 이 땅에 풀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말씀처럼 마지막 때 세워질 경배의 대로를 따라 중동이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쓰임 받는 가정되도록
2. 이집트의 교회들이 기도와 예배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천국 열쇠를 돌리는 교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3.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깊은 언어의 진보를 위해 지혜를 더하시고, 가정을 통해 1세기 사도행전적인 본질적 교회를 세워 주시도록

● 전용우 / 김신영



- 파송국가 : 일본
- 파송교회 : 부산교회, 오병이어교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렘 24:7)

기독교인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일본. 선교사의 무덤이라 불리는 일본. 가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꼭 가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로 인해 일본으로 향합니다.

바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일본으로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좋은 소식이 일본 땅에도 널리 퍼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선교사로 세워지도록
2.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본 현지 교회와의 연결이 순직하게 이뤄지도록

● 정금옥



- 파송국가 : 미정
- 파송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노라”(빌 3:14)

30대 초반에 남편과 함께 청계산기도원에서 기도드리는데 가운데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당시 목회중이라 선교의 마음을 묻어두고 있다가 몇 년 전에 금요기도회에서 선교에 대한 열망이 다시 요동을 쳤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 건강 주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의 부르심의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 가려고 합니다.

■ 기도제목

1. 소명의 순종하며 나아가게 인도 하오시며, 언어의 장벽도 무너지게 하옵소서.
2. 저희 가정의 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리 하여 주시며, 재정에도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3. 하나님의 일에 기도의 동역자와 물질의 동역자를 많이 붙여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4. 남편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 한송이



- 파송국가 : 미정
- 파송교회 : 지구촌교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창 22:17)

받은 사랑 전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 기도제목

1. 주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제가되길 기도합니다.
2. 사람이나 계획보다 주님이 이유가 되어 행하는 삶을 살게 되길 기도합니다.
3. 주신 은혜를 고이게 두지 않고 흘러 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주시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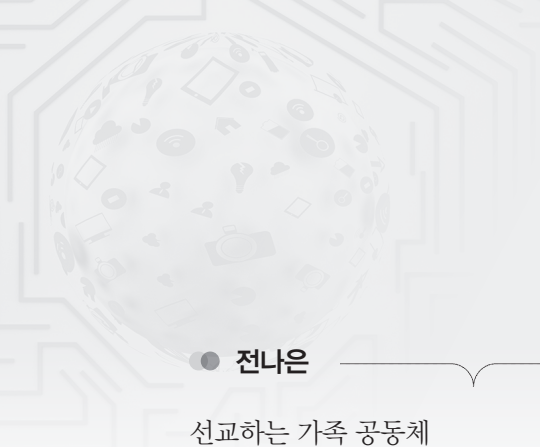


WMTC 35기 훈련 소감문

● 이성민

저는 침신대 신학과 1학년 선교 축제 때 헌신의 기도를 했었습니다. 젊은 20대에 1~2년 정도 단기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간이 흘러 군대를 다녀오고 다양한 단기선교 여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인도로 FMB 인턴 단기 선교사로 1년 11개월 정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시간은 저의 인생에서 값진 시간이면서 앞으로 삶과 사역의 방향을 세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도에서 나올 때 다시 가게 된다면 혼자 가지 말고 가정을 이루어서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었고 부교역자 생활을 통해 사역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배우자를 만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선교지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 과정 중에 35기 장단기 선교사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훈련을 마치며 그동안 받은 선교훈련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훈련 과정 중에 선교동향, 선교전략, 제자훈련 등 여러 강의를 통해 새롭게 만날 선교지의 영혼들을 떠올리며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재충전입니다. 선교사의 정신 건강과 갈등 해결, 부부상담을 통해서 저의 삶과 사역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쳐있던 부분을 회복하고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격려입니다. 젊은 35기 훈련생들과 함께 긴 선교사역의 로드맵을 그려보면서 서로 배우고 격려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출발, 재충전,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세계선교훈련원 모든 스텝분들과 함께 훈련받는 35기 동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전나은

선교하는 가족 공동체

10년전 결혼하고 돌이 된 쌍둥이들과 타 단체를 통해 선교지를 처음 갔었습니다.

4년여 동안의 선교지 사역이후 여러 인도하심을 받으며 WMTC 훈련으로 주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세계선교훈련원에 걸려있는 선교하는 가족 공동체 글씨를 보는데 왠지모를 뭉클함과, 새로운 가족을 만나겠구나 하는 설렘이 들었습니다.

처음 1주간 훈련생 동기분들과, 섬겨주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의 간증과 소명을 들으며 한분한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선교의 부르심으로 그 삶들을 지금도 불드시는 주님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훈련원에 들어오면서 특이하였던 것은 넓은 거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숙소의 구조였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점점 거실로 나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웃기도, 울기도 하며 삶과 또 앞으로 나아갈 사역지와, 마음들을 나누며 가까워져 갔습니다. 또 아이들은 내복바람으로 거실을 누비기도 하고, 장난감을 같이 갖고 놀며 서로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어갔습니다.

강의를 듣는동안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을 내어 나아가고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섬겨주시는 여러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으며, 결국엔 이 모든 사역의 시작은 주님이시며, 사역의 마침도 주님 이시며,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 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의 힘을 빼고, 성령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WMTC 훈련을 섬겨주시는 선교사님들과 스텝분들의 섬김이 가족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생각해주지 못할 것 같은 따듯하고 세심한 섬김을 받으며 감동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 훈련이 마치면 부르시는 사역지로 모두가 흠어지겠지만, 훈련기간동안 누렸던 가족공동체를 기억하며 서로를 중보하는 중보자로, 가족으로 섬길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김하진

저는 선교지 현장의 경험이 있었고,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선교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왔기에 소명에 있어서 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첫 소개시간부터 너무 대단한 훈련생들 사이에서 위축되는 것을 느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부르셨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러주심은 감사했지만 젊고 스펙 좋은 훈련생들을 보며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의 강권하심으로 이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어쩔 뻔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실하셔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적어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강의들을 통해 저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비자의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알아서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며 원망했던 저의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불평 많은 요나와 같은 모습과 닮았음을 발견하며 부끄러웠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나서를 이전에 묵상했을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임성도 목사님의 요나서 강의와 이수정 선교사님의 예는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못 쓰실 사람이 없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저에게 응답으로 느껴졌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고 쓰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았고, 나를 보내시는 것을 보면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결국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저를 통해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 생각되어지니 감사했습니다.

또한 훈련은 직면하기 싫었던 저 자신을 마주하게 했으며, 처음으로 느껴보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내면의 문제들을 발견하면서 저는 전문적인 상담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회복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을 보내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으로 나가기 위해 WMTC를 통해서 저를 안성맞춤으로 준비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소명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끝까지 섬길 것을 결단해봅니다. 혼과 육이 강건하고 성령충만을 받아서 기쁨으로 주님이 보내신 땅으로 나아가 K민족과 함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사진으로 보는 35기 장단기 선교사 훈련



인턴선교사 소개 및 기도제목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FMB) 인턴선교사 프로그램은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1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선교지를 보고, 배우며, 경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턴제도는 2021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연 2회(2, 8월)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턴선교사 훈련은 10박 11일 동안 성경 중심훈련과 현장 중심훈련으로 진행됩니다. 성경 중심훈련은 '십자가 복음(여주봉 저)' 강의를 통해 다 시금 복음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현장 중심훈련은 타문화의 이해, 선교지 리서치, 국내 외국인선교지 미션트립 등 선교지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예비 인턴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겪을 수 있는 문화 충격을 최소화하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궁극적으로 인턴선교사 프로그램을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선교적 삶을 실천하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청/장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인턴선교사 9기 훈련생 모집 중
모집기간 : 2025. 5. 12 ~ 6. 19

| 문의 : 양유빈 간사 010-3014-6091

● 권주아



- 파송국가 : 튀르키예
- 파송교회 : 믿음의교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장 9절)

■ 기도제목

1.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선교 과정에 필요한 자원,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2.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3. 튀르키예의 문화와 현지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언어 습득의 능력을 주셔서 현지인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기다숨



- 파송국가 : 일본
- 파송교회 : 세종중문교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한일서 4장 19절)

■ 기도제목

1. 일본으로 가기 위한 준비(비자, 재정, 동역자 개발 등)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 저, 그리고 함께하는 소연 자매에게 일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부어지도록
3. 맞이해주시기 위해 여러가지로 섬겨주시는 아이센교회와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도록

● 김소연



- 파송국가 : 일본
- 파송교회 : 아름다운침례교회

● 김민혁



- 파송국가 : 카자흐스탄
- 파송교회 : 주사랑교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장 9절)

■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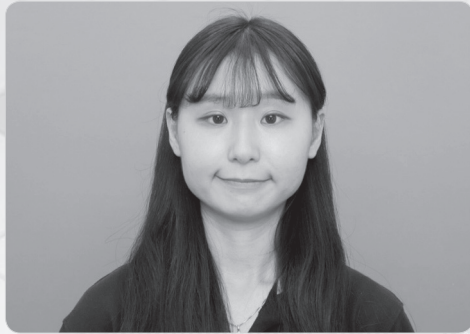
1. 현지 언어와 문화를 경험하고 배워 이를 통해 그 곳에 복음전파가 일어나도록
2. 만나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3.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또 오셔서 면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에베소서 2장 17절)

■ 기도제목

1.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2. 일본 땅의 동역자, 모든지체들이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3. 선교지에서 영육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주신 사역을 행복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 김희연



- 파송국가 : 아제르바이잔
- 파송교회 : 늘사랑교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장 14절)

■ 기도제목

1. 아제르바이잔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2. 선교의 모든 과정(언어, 재정, 문화, 교회와 선교 사님과 소통, 기도의 동역자 등)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부어지도록
3.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고 이땅의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것을 구하며 성숙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나기를

● 백종권



- 파송국가 : 카자흐스탄
- 파송교회 : 공주하늘문교회

● 백송희



- 파송국가 : 한국(국내 탈북민)
- 파송교회 : 주향교회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줍니다”(베드로전서 4장 8절)

■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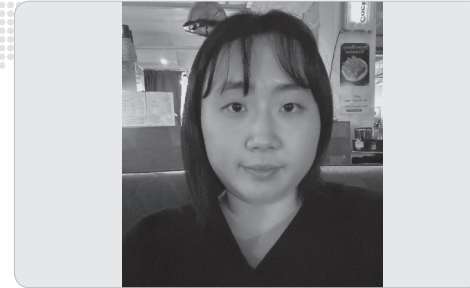
1. 경험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역에 동참하도록
2.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도록
3. 1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는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한복음 14장 21절)

■ 기도제목

1.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선교를 배우며,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하고 언어습득이 잘 될 수 있도록
2. 만나는 영혼마다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3. 동역자 개발이 잘 이뤄지고, 필요한 재정이 잘 채워지도록

● 신재은



- 파송국가 : 카자흐스탄
- 파송교회 : 지구촌교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태복음 24장 14절)

■ 기도제목

1. 열방 가운데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길
2.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길
3. 청년들이 더욱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 조윤정



- 파송국가 : 우즈베키스탄
- 파송교회 : 예담중앙교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장 20절)

■ 기도제목

1.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2.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3.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선교지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 정하영



- 파송국가 : 튀르키예
- 파송교회 : 자운교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린도전서 9장 23절)

■ 기도제목

1.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길
2. 공동체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제 시간이 허락되길
3. 주님과 관계를 항상 생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길

● 최다은



- 파송국가 : 튀르키예
- 파송교회 : 기쁨의교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린도후서 4장 6절)

■ 기도제목

1. 항상 성령 안에 거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2. 누구를 만났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진정한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3. 파송 준비, 현장 사역, 이후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밀한 손길 느끼도록

김해 미션트립 보고서

● 권주아

지난 2박 3일 동안 김해 우즈베키스탄 센터에서 진행된 미션트립은 내게 익숙함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 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본가가 창원이라 김해는 자주 방문했던 지역이고 익숙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이렇게 다른 문화를 품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곳은 단순히 중앙아시아 문화를 재현한 공간이 아니었다.

센터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마주한 풍경은 내가 알던 김해가 아니었다. 이국적인 분위기, 현지인들의 모습, 그들과 섞여 있는 한인들을 보며 마치 내가 중앙아시아 한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낯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비된 만남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 같다.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미션트립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찬양을 부른 순간이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찬양을 부르는 그 장면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함께 찬양하며, 내가 인턴선교사로 온 이유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또한, 나의 작은 섬김과 노력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미션트립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분의 일에 내가 얼마나 작은 도구로 쓰일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이길 간절히 바라며, 이번 미션트립에서 얻은 깨달음을 잊지 않고 나아가고자 한다. 모든 순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를 통해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선교사의 세계를 다녀오며

| 이민욱, 엄세영 선교사(뿌리깊은교회 담임목사, 전 FMB 단기선교사)

1. 뿌리깊은교회와 카자흐스탄과의 만남이 시작되다

저희 부부는 2010년, 뿌리깊은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기선교 지역을 고민하던 중, 카자흐스탄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국가와 민족 중에서 왜 카자흐스탄이었을까? 부교역자로 훈련받는 기간, 대학부의 제자들과 함께 오가던 지역과 민족이 카자흐스탄과 카자흐 민족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 전부터 해마다 부지런히 오고 가며 무슬림 사역의 면모를 조금씩 배울 수 있었고, 크즐오르다 살렘교회와 시작된 인연이 생각보다 크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기도 했구요. 더불어, 오랜 기간 동역으로 신뢰가 쌓였던 주원장(이나연) 선교사님의 존재도 적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런 이유와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뿌리깊은교회는 2017년부터 카자흐스탄을 향한 단기선교 사역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 9명으로 시작된 단기 선교팀의 인원이 어느덧 40명을 넘어가고, 그렇게 8년이 흘러가며 어느새 카자흐스탄이 우리 교우들의 마음 밭에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2. 크즐오르다 살렘교회와 형제 교회를 맺다

우리 교회의 단기 선교는 '카자흐스탄' 국가에 있는 '크즐오르다' 도시의 한 현지인 교회와 동역이 중심이었습니다. 크즐오르다 살렘교회였습니다. 2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게다가 우리 선임 선교사님들이 기초와 틀을 놓고 현지인 리더십에게 이양했구요. 지금까지도 카자흐 민족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입니다.

그런 교회와 해마다 선교 협력을 이어오던 시절, 2022년이 되던 해에 우리 교우들은 크즐오르다 살렘교회와 형제 교회로서의 협약식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선교지 방문 및 탐방의 차원을 극복하고,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의 동지애로 동행하자는 마음이 담기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막힌 담이 우리의 연합을 막을 수 없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두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쁘게 나누어졌고, 양국에서 한 번씩 협약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현지 교회의 목사님 부부와 목자들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함께 기념했던 순간과 우리 교우들이 현지로 찾아가 함께 기념했던 순간의 감동이 여전합니다.

3. 형제 교회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다

다들 아시듯,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도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항공편이 막혔으니 여느 해와 같은 방식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현지의 형제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어려운 시기이긴 했지만, 형제 교회의 어려움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교회에서 기도하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엄세영 사모와 이민욱 목사 부부가 2024년도의 일정 기간을 현지의 형제 교회에서 함께 체류하는 방식으로 결의하였습니다. 협의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교우들의 기도와 응원을 받고 파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파송은 뿌리깊은교회 차원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단기 선교팀 파송에 머물러 있던 사역의 범주를 넘어서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였습니다.

4. 장단기 선교사가 세워지는 전체 과정에 참여하다

2024년 1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크즐오르다 살렘교회를 위한 최선인지에 대하여 우리 부부는 고민하였습니다. 여러 선교사님을 찾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단순한 1년 체류'보다 '훈련 후 파송'이라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반기 6개월은 2024년 3월에 시작하는 WMTC 장단기 선교사(34기) 훈련에 참여하고, 허입 및 파송의 전 과정까지 이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 7월에 출국하여 연말까지 현지에 체류하며 형제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일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는 우리 부부에게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당면 과제는 현지의 형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실제적 방법을 찾는 것이긴 했지만, 어렵게 마련된 이 기간이 우리 뿌리깊은교회의 미래 선교 사역에도 실제적 유익이 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 후보자가 장단기 훈련을 받고, 시취를 거쳐 허입되고, 지역 교회의 파송을 받아 출국하는 전체 과정을 알아야겠다는 결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부가 WMTC 34기의 일원이 되어, 장단기 선교사 훈련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정말 많았습니다. 우선, 34기 동기들이 저희 부부가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전부터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많지만, 동기로부터 또 다른 느낌의 선교적 도전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선교라는 주제로 집중하여 고민할 수 있었던 3개월의 훈련 역시 큰 소득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모두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 선교에 대한 깊은 소양과 통찰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단기선교의 인솔자로 오갔던 과거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눈을 얻은 느낌입니다. 우리 부부가 외부자의 시선이 아닌 선교 당사자의 입장에서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기존의 단기 선교 경험, 선입견, 전언 등으로 파악하고 있던 것이 전부였던 우리 부부의 경험치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기회였습니다.

5. 카자흐스탄의 생활을 시작하다

24년도 상반기, 선교를 위한 훈련으로 마치고 우리 부부는 7월 2일,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파송 예배에서 교우들에게 받은 감동과 기도의 힘을 얻어 현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선임 선교사님들의 지도를 따라, 입국 후 언어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6개월의 단기 체류이긴 했지만, 언어는 곧 해당 민족을 위한 예의이며 이해의 척도라는 가르침을 받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입국 2개월 동안은 현지 언어 선생님과 주 2-3회의 면대면 지도를 받았고, 크즐오르다 지역으로 이동한 이후부터 귀국



직전까지 4개월 동안은 주 1회의 화상 지도를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초보 수준이긴 하지만, 예전의 완전 무지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카자흐 민족을 이해하는데 큰 진전을 이루는 것 같아 기쁨이 있습니다.

6개월의 현지 체류 기간, 우리 가족은 서로 다른 도시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사역을 위해 크즐오르다로, 두 아들은 학업을 위하여 알마티에서 지냈습니다. 한창 예민할 청소년기(고 2, 중 3)였으니, 자녀들을 향한 염려와 미안함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낯선 홈스테이 경험을 즐겁게 받아들였고, 외국 학교 생활도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내심 6개월 동안 적응만 하다 끝내면 어찌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계속 있고 싶다는 것을 보니 대견했습니다.

물론 두 아들은 작년 12월 25일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한국 수업의 공백을 메우느라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고 3이지만, 고등학교로 복학하지 못하고, 재수학원에서 독박 수험생 생활을 하고, 작은 아들은 고 1이지만, 배운 적 없던 과목의 분량을 혼자 채우느라 애를 태웁니다. 그래도 이제 다 커서 부모 마음 헤아리는 것일까요? 작년의 경험이 너무 좋은 기회이자 시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로 겪은 상황을 떠올릴 때마다, 모든 시간을 드린 장기 선교사님 가정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현지로 가서 정착하고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과 각오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간혹 선임 선교사님들께서 어느새 청년으로 자란 자녀들을 그동안 어떻게 키워내셨는지를 알려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막 출국하여 현지에서 자리를 잡는 동기들을 생각합니다. 기도 편지에 담겨 있는 내용보다, 담겨 있지 않는 뒷 이야기들이 더 많을텐데요. 자녀와의 시간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현지 생활의 수준은 한국과 달랐습니다. 단전으로 인한 곤혹스러움도 낮설었습니다. 단수가 길어질 때 찾아오는 불편함도 배웠습니다. 예전 선교사님들의 편지 속에서 읽기만 했던 단전과 단수, 격오지 느낌의 생활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조금이나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야 6개월 살고 돌아가면 마무리가 되지만, 평생을 살아야 하는 장기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어떨지에 대하여 아내와 지금도 나눕니다.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상황도 제게는 도전을 주는 요인이었습니다. 관례도 모르고, 언어도 안되고, 문화를 모르니 대응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실수 없이 살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볍지 않은 감정들과 상황들이 장기 선교사라면 빠짐없이 통과해 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장기 선교사님들을 향한 존경과 응원의 마음이 이전과는 훨씬 다른 차원으로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6. 현지 교회와 시간을 갖다

크즐오르다 살렘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새로 부임한 젊은 목회자 가정의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오랜 세월, 자리를 지키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평신도 목자들이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살렘교회 성도들의 살아가는 고민들을 조금 더 깊이 알고 돌아왔습니다.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로해야 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도시로 찾아와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부부를 보며, 신기하게 여기기도 했고, 걱정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고맙다는 말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늘 챙기는 목사님을 보며, 어쩌면 우리 부부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졌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답할 일은, 맡겨주신 어린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중보 기도 사역에 힘을 쏟는 것이었습니다. 엄세영 사모는 마치 우리 교우들 챙기듯, 현지 여성 성도들을 부지런히 챙겼습니다. 주님께 받은 마음을 어떻게라도 전달하려고 애쓰는 아내의 모습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배움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과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알고, 서로 안부를 묻고,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는 선교지 현지 교회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자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가자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소개하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소개하는 성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크즐오르다 살렘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인턴선교사 시간을 통해 더욱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7. 앞으로의 여정을 고민하다

우리 부부는 작년 한 해, 선교 사역을 통해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한 남다른 각오를 요구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한 묵회 및 선교 사역에 대한 강단있는 실천을 요구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모국어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무슨 오지랴이냐며 도전하셨던 한 분의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동시에 기도가 충분하지 못했던 제 과거의 묵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충분한 기도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과 음성을 구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걸음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땅에도 들어가는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를 보며, 묵회자로서 선교사적 관심과 사역을 펼칠 접점을 고민하게 됩니다.

뿌리깊은교회 15년 묵회를 돌아보며, 올해부터는 또 한 번의 도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첫 해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름받아 나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 부부의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부부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2025년 하반기 기관별 사역 일정

침례교 해외선교회(FMB)

- 7월 - 만만세 선교축제
- 8월 - 인턴선교사 9기 훈련 - FMB MK 여름캠프
- 9월 - 지부장 연례회의
- 10월 - 제 7회 FMB 선교포럼 - YFMB 파리전략회의
- 11월 - 제 5회 은퇴선교사 감사예배
- 12월 - 장단기 선교사 시취

선교전략연구개발원(SRDC)

- 9월 - 9월 인투네트워크 소논문 발표회(FMB 인투네트워크와 공동 주관)
- 12월 - 제2회 FMB 현장사역 사례연구회

세계선교훈련원(WMTC)

-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Missionary Up-grade Training)
 - MUT Professional : 2025년 6월 24일 ~ 7월 18일(4주간)
 - MUT Senior 1회차 : 2025년 10월 14일 ~ 11월 6일(4주간)
 - MUT Senior 2회차 : 2025년 11월 18일 ~ 12월 11일(4주간)
- 인투미션 선교 교육(in2mission)
 - 인투미션 웨비나 선교학개론 : 2025년 9월 16일 ~ 12월 9일(12주간)
 - 인투미션 웨비나 : 2025년 10월 14일 ~ 11월 18일(6주간)

- 문의 : 침례교 해외선교회(02-2619-2202), 세계선교훈련원(042-828-3371)



in2mission

인투미션 선교학교

1. 인투미션 선교학교란?

인투미션(in2mission)은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학교’입니다. 각 교회가 선교를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선교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현직 선교사 및 각계의 선교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의를 통해 선교이론을 배우고, 생동감 넘치는 선교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헌신된 선교 일꾼들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in2mission의 단어적 의미** 지역교회와 평신도들이 선교(mission)에 투입(into)되도록 동원하는 선교학교로서, ‘선교에 빠지다. 선교에 잠기다. 선교 속으로’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숫자 ‘2’는 지역교회와 선교라는 두 개념을 의미하며, 인투미션 선교학교가 이 둘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2. 인투미션 진행안내

- 인투미션 :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기초 선교 교육(FMB 동원팀으로 문의)
 - 기간 : 8~10주(대면 방식, 기간은 교회와 협의 후 결정)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사역자 등
 - 진행 : 온라인 강의 + 과제물(독서 보고서 등)
- 인투미션 웨비나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기초 선교 이론 교육
 - 기간 : 매주 화요일, 6주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온라인 강의 + 과제물(강의 연구문제, 보고서)
- 인투미션 웨비나 선교학 개론 :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선교 이론교육(온라인)
 - 기간 : 매주 화요일, 12주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이현모 교수 전담 강의 + 강의 소감문
- 인투미션 선교위원 과정: 선교위원 및 교회 내 선교 헌신자들을 위한 ‘선교 실무교육’
 - 기간 : 매주 화요일, 7주(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
 - 대상 : 교회 선교위원, 교회 내 선교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강의 + 소그룹 활동

3. 수료 혜택

- 침례교 해외선교회(FMB)와 세계선교훈련원(WMTC) 공식 수료증 발부
- 인턴선교사 훈련 자격 인정(2, 8월에 열리는 국내 타문화권 미션트립 및 전도 아웃리치 모두 참여 시 인턴선교사 최종자격 부여)
- 문의 : 세계선교훈련원(WMTC) Tel. 042-828-3371

